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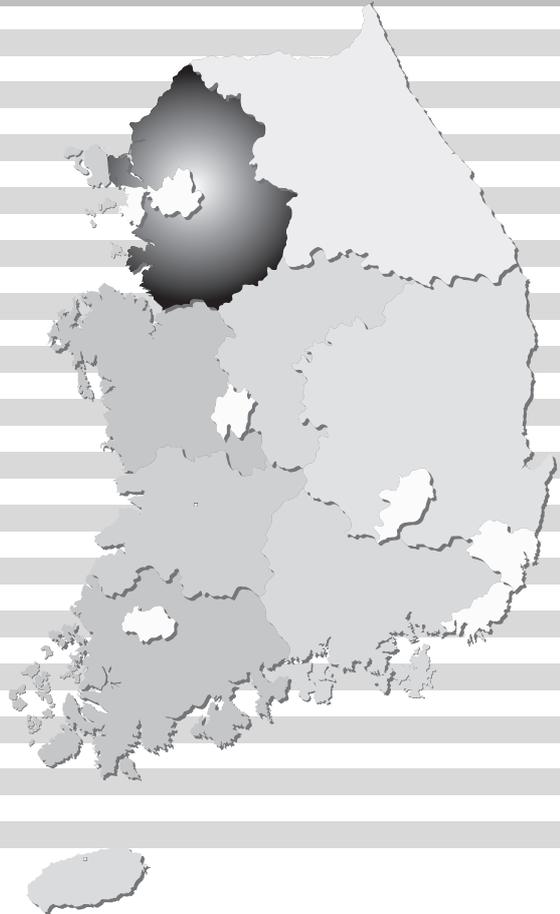
0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박중희
 수원시 권선구 | 정미경
 수원시 팔달구 | 남경필
 수원시 영통구 | 김진표
 성남시 수정구 | 신영수
 성남시 중원구 | 신상진
 성남시 분당구갑 | 고희길
 성남시 분당구을 | 임태희
 의정부시갑 | 문화상
 의정부시을 | 강성종
 안양시 만안구 | 이종걸
 안양시 동안구갑 | 이석현
 안양시 동안구을 | 심재철

부천시 원미구갑 | 임해규
 부천시 원미구을 | 이사철
 부천시 소사구 | 차명진
 부천시 오정구 | 원혜영
 광명시갑 | 백재현
 광명시을 | 전재희
 평택시갑 | 원유철
 평택시을 | 정장선
 양주시·동두천시 | 김성수
 안산시 상록구갑 | 이화수
 안산시 상록구을 | 홍장표
 안산시 단원구갑 | 천정배
 안산시 단원구을 | 박순자

고양시 덕양구갑 | 손범규
 고양시 덕양구을 | 김태원
 고양시 일산동구 | 백성운
 고양시 일산서구 | 김영선
 의왕시 | 안상수
 구리시 | 주광덕
 남양주시갑 | 최재성
 남양주시을 | 박기춘
 오산시 | 안민석
 화성시갑 | 김성희
 화성시을 | 박보환
 시흥시갑 | 백원우
 시흥시을 | 조정식

군포시 | 김부겸
 하남시 | 문학진
 파주시 | 황진하
 이천시·여주군 | 이범관
 용인시 처인구 | 우제창
 용인시 수지구 | 한선교
 용인시 기흥구 | 박준선
 안성시 | 김학용
 김포시 | 유정복
 광주시 | 정진섭
 포천시·연천군 | 김영우
 양평군·가평군 | 정병국



선거구명	수원시 장안구	박종희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전철 4호선 통과**

- 100만 수원 시민의 소망이자 장안구민의 열망인 전철 4호선연장 사업은 재원 부족이라는 이유로 미뤄져 왔다. 수원은 서남부권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통로이자 근접 지역에 위치한 교통의 길목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지만 뒷받침해주는 교통체계는 버스로 단일화 되어 있다. 고유가 시대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은 가계에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버스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1호선이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 연결되어 있지만 유동인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때문에 수원 시민들은 만원버스에 의존한 채 버스 안에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또한 화성, 동탄 지역의 신도시개발로 인구 증가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단일 교통체계는 우리지역 교통체계의 다변화가 당면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재원부족이라는 명분 아래 2007년 7월 취소시킨 전철4호선 연장(인덕원~장안구청~화성동탄)사업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대선공약으로 전격 채택시킨 저의 가장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과천·의왕출신 안상수 의원과 한일타운 지하철유치소위원회(위원장 진성훈)등과 함께 빠른 시일에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반드시 관철 시킬 것이다.

공약 2 **신분당선 조기착공**

- 신분당선은 수도권 전철 노선 중 하나로 2010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1990년대 IMF구제금융사건으로 인해 백지화된 수도권 3기 지하철 11호선의 노선 중 일부를 조금 바꾸어 광역 전철로 기획된 노선이다. 하지만 수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관철되지 못하고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하는 사업으로 남아 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고충과 애로를 무시하는 기만이며 배짱이다. 우리 100만 시민은 강남~분당 정자역간 신분당선 연장구간 2010년 개통, 분당정자~수원 광교간 신분당선 2014년 완공, 나머지 광교~호매실 구간 2019년 완공계획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미 오랜 기다림으로 지치고 바닥에 치달은 우리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빠르게 착공되어야 한다. 이런 지역사회의 민심을 등에 업고

저는 이 사업을 최소한 5년 앞당길 것이다. 이미 사업의 당위성이 명명백백한 지역 현실에서 신분당선 사업을 더 이상 늦춘다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 지역사회의 역점 사업인 ‘전철 4호선 통과 공약’ 과 함께 사업을 관철시켜 서울 출퇴근을최소한 30분 단축하여 지친 100만 시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약 3 교육, 체육, 의료 인프라구축

- 우리 장안지역의 시민들은 타 지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장안지역에 체육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접하는 공간이 미비하기때문이다. 기존 청소년문화센터는 인계동쪽으로 신축 이전하면서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공간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장안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늘이기 위해 SK케미칼, KT&G(구 연초제조창)부지에 문화, 예술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안지역 구민들이 쉽고 편하게 참여하고 관람하는 등 구민의 문화, 예술의 질적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우리시에는 자립형사립고가 없다.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자립형사립고가 설립된다면 그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교평준화를 보완하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 타 지역의 민사고나 상산고 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지역사회에 교육적 질을 높이고 지역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이에 충분한 가치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그에 대한 보완으로 기숙형 공립고도 함께 추진하여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감의 수원장안을 이룩할 것이다. 또한 울전지역에 대학병원급 메디컬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장안구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꾀할 것이다.

공약 4 수원비행장 이전

- 지금 우리 수원은 인구의 유입이 계속되고 추가개발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공군비행장이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반세기 동안 고통을 겪어온 서 수원권 주민 18만여명은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시의회는 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관 모두 그 이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수원시 총 면적의 46.2%, 녹지를 제외한 순 시가지의 70.6%가 비행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지난해 8월 국방부에 수원비행장의 이전 검토를 요청하는 등 시민들의 비행장이전 요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물론 비행장의

이전은 현재의 분단 상황과 지리적 요건 등은 고려 될 상황이다. 하지만 반세기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아온 수원시민의 염원과 더불어 수원의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비행장이전이라는 숙원사업은 반드시 해결 돼야 한다. 또한 대체부지로 마련된 시화부지는 그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와 바다이고 현 비행장의 위치와 불과 36km 떨어져 있으며 부지 또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최적지로 뽑히고 있다. 국방부를 반드시 설득해 우리 수원의 발달에 이바지 할 것이다.

공약 5

관광문화도시 건설

- 화성복원 및 정비사업 계획에 따르면 총 1조 9천 922억원이 투입 되 2020년까지 3단계로 성곽 및 성 안팎 시설복원, 성곽주변 도시개발, 기반시설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재법등 기타 관련법들에 의하여 성역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복원사업이 시작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전체사업비의 19%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재정난으로 인해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지금과는 달리 한층 탄력화 될 것이다. 복원 사업 9년째인 현재 모두 3천 810억원이투입 되 화성행궁 521칸 완전복원, 장안문 성곽 잇기 공사 등 행궁 1단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다. 2단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켜나가면서 모든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 승례문과 같은 문화재 손실을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그동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여러 폐해를 받은 지역인 영화동, 송죽동, 파장동, 연무동 일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인접지역의 관련 사업 타당도를 조사하여 화성과 도시가 어울어지고 관광명품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선거구명	수원시 권선구	정미경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수원비행장 이전을 실천하겠습니다.**

- 전국 10여개 도심화지역 군용비행장 이전 지원 특별법 제정
- 우선적으로 비상활주로부터 고도제한 해제
- 이전부지에 첨단산업단지 유치

공약 2 **친환경적 호매실 택지 개발 지구 완성**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상의 임대주택 비중(40%이상 임대주택) 하한선까지 호매실 임대주택비중을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구
-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 및 서울대 농대 이전 부지 활용방안 등의 연계 개발을 건설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등과 함께 모색
- 전국의 임대주택 분산배치를 정부에 요구

공약 3 **수원역 서쪽 출입구 신설**

- 수원역사 서부 출입구를 신설, 교통란 해소 및 서부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서둔동 KCC 공장부지를 이전, 인근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와 문화 혜택 기회 제공(대형 쇼핑센터 유치)

공약 4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치안강화**

- 세이프존 11(safe zone 11) 지정, 권선구 11개 행정동 소재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강화
- 아동, 청소년 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학교 급식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확대
-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육아문제 해결
- 장애인들이 편한 지역으로 조성

선거구명	수원시 팔달구	남경필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수원화성 역사문화관광산업 중심도시사업을 국책사업화하겠습니다.

■ 개요

- 총예산 1조9천억원으로 99~2020년까지 추진될 동 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비사업 지연으로 성곽 주변 주민들의 심적, 물질적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 자랑스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완벽 복원하고,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화가 절실합니다.

■ 정책 제안

- 2008.1 대표발의한 “수원화성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미복원 성곽 및 기반사업에 국비를 더 많이 끌어오겠습니다.
- 문화재 복원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 예상 기한

- 2008-2009년: 특별법 통과 매진 및 성곽복원에 대한 국비지원 증액 노력
- 2010-2020년: 특별법 제정. 년 평균 1,200억원의 국·도비 확보.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여 사업완료

공약 2 수원비행장 이전을 실천하겠습니다.

■ 개요

- 현재와 같은 고도제한구역 최소화와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마련 노력만으로는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야 합니다.
-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수원의 발전가능성은 비행장 이전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정책제안

- ‘도심화지역 균용비행장 이전지원특별법’ (가칭)을 제정하겠습니다.
- 우선 비상활주로부터 고도제한을 해제시키겠습니다.
- 비행장 이전부지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겠습니다.
- 이전 대상부지로 수자원공사 소유인 시화지구를 제안합니다.
- 비행장 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이전 및 건설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예상 기한**

- 2008년 : 특별법안 제출
- 2009-2010년 : 국방부와 비상활주로 해제 논의 및 대체 예상부지 (시화지구) 실사 추진
- 2011년 : 특별법 제정
- 2012-2017년 : 대체 공항 건설

공약 3

시통팔달 대중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하겠습니다.

■ **개요**

- 최근 수원 주변지역의 급속한 신도시화 및 서수원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향후 교통난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 110만 수원인구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수원의 발전 가능성을 제고할 시, 광역도시철도가 더욱 확충되어야 합니다.

■ **정책제안**

- 신분당선연장선 일괄착공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 분당선연장선(오리-수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 예상 공기를 반으로 단축하겠습니다.
- 인덕원~수원~동탄을 연결하는 전철4호선 연장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 **예상 기한**

- 신분당선연장선 : 국토해양부에 일괄착공의 타당성을 설득하여 2009년 정자~광교 노선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당선연장선 : 연평균 국비 2,500억원 이상씩 배정받아 4년내 완공하겠습니다.
- 전철4호선 :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검토 중인 사업이므로 강력하게 주장해서 2010년내에 출범시키겠습니다.

공약 4

수원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문화·휴식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 개요

- 수원천 복개구간을 복원하여 전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경우 청계천을 능가하는 시민문화·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원천이 복원될 시 근래 주변 상권이 되살아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책 제안

- 국토해양부를 설득하여 국비를 지원받겠습니다.
- 복개 복원후 부족해질 주변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문화 이벤트를 상설화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예산은 국토해양부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반영(60%), 지방하천정비(구조물철거)에 따른 지방비 확보(40%)로 해결하겠습니다.

■ 예상 기한

- 2008.05-2008.08 기본 설계 및 적격 심사
- 2008.08-2008.10 실시 설계 및 적격 심사
- 2008.11-2010.04 복원공사 추진

공약 5

인계동 삼호공원 1단계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요

- 총사업비 746억원중 이미 445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아직도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수년을 끌어온 삼호공원 조성 사업의 1단계 공사를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 정책제안

- 수원시 예산으로만 진행 중이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큼니다. 모자란 예산은 도비에서 확충해 오겠습니다.
- KBS 소유 10필지(보상액 120억원)에 대한 수원시·KBS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기한

- 2008.1~4 보상협의를
- 2008.4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08.5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2008.6 1단계 구역 공사 착공
- 2009.12 1단계 구역 공사 완료

선거구명	수원시 영통구	김진표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교육비 절감
 - 방과후학교 및 다양한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원어민교사 확충, 대학생 멘터링 사업 추진
- 중고등학교 증설 및 특성화교육 확대로 경쟁력 강화
 - 영어, 과학, 수학, 예체능 특성화교육 확대, 인재양성을 통한 학교 경쟁력 향상
-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속 확충
 -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증액으로 교육장비, 특수교실, 도서관, 체육관, 인조잔디운동장, 급식시설, 화장실 등 개선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졸업생 취업기회 확대
 - 아주대, 경기대, 경희대와 삼성전자, 협성회원사, 경신협 산학협력을 추진하여 대학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종 유치 지원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추진
 - 법정교원 확보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되 우수교원을 초빙하고, 수원시와 경기도가 교육투자비를 확대하도록 관련법규 개정 추진

공약 2 사통팔달의 선진교통

- 분당선 연장선 2011년 완공, 교통체증 해소 및 주변 상권 보호
 - 매년 정부예산 2,000억원 확보로 영통구 관내 노반공사 우선완공
- 기흥IC는 2008년 상반기 개통, 수원IC는 2010년 완공, 만성적 교통 체증 해소
- 영덕~오산간 광역도로 2008년 완공
- 망포~마평간 지하도로 2009년 완공,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대 및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
- 광역버스노선 확충 및 노선조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및 시행규칙 수정 추진
- 신분당선 연장선 2012년 완공
 - 신분당선연장선, 정자~광교구간에 대한 민자투자사업을 2008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2년 완공 추진

- 광교테크노밸리에 6만평의 연구기반시설 구축, 고급일자리 창출
 -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등 IT첨단산업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 삼성과 관내 대학을 연계하는 연구클러스터 구축
-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고, 삼성~태장, 곡반정동~수원비행장~서울농생대부지~향남제약단지 벨트화한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
 - 고도제한으로 시민의 재산권 및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고, IT, BT, NT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한국형 실리콘 벨리 조성
-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화성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전통문화관광 기반 구축
 - 화성복원및전통문화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안 제정 추진
- 광교테크노밸리, 국제비즈니스 시설확충으로 기업활동 지원
 - 국내 최대의 컨벤션센터, 대형호텔 건립으로 국제 무역박람회 등 유치, 경기도내 대중소기업의 국제비즈니스 지원
- 음식, 이미용업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로 서민경제 활성화
 - 150여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 등, 각종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지원 확대 추진
- 특수직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강화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보조원 등 특수직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추진

- 영흥자연공원, 가족공원 조성을 위한 정부예산 추가 확보
 - 정부예산 20억원 확보로 영흥공원 내 체육공원을 완공한 데 이어, 가족공원 조성에 필요한 정부특별교부금 확보
- 태장동 농촌진흥청 부지, 주민자치센터 및 체육공원 조성
 - 주민의 행정편의를 증진하고 여가활동에 활용
- 2010년까지 원천동과 매탄동 일원의 한전 철탑 지중화 완료
 -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는 원천동 일원 철탑 지중화공사를 한전부담으로 지중화
- 매탄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탄공원 내 다목적 회관 및 대형주차장 건립
 - 2007년 정부특별교부금 10억원 기확보

- 청명산, 독침산에 생태공원을 조성, 어린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
- 관내 소공원을 과학, 생태, 교통 등 테마공원으로 재조성
 - 주5일 수업에 따른 가족 특별학습장 활용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확대
- 맞벌이부부를 위한 영유아 보육지원정책 확대
 - 아기돌보미, 베이비시터 등 경력단절 전업주부들의 일자리창출
-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실시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지원

공약 5 주민공동체 문화 조성

- 아파트 공동체문화 조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각 아파트 단지별 공유지에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 어린이 인성교육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공동체 문화 조성
- 자치센터, 문화교실, 평생학습대학원 동호인 문화축제 개발 및 지원
 -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동호인 문화축제 한마당 개발지원
- 주민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즐기는 영통축제 프로그램 개발
 - 경기수원외국인학교 학생, 학부모들과 지역주민, 학생들이 함께하는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통을 상징하는 축제로 발전

선거구명	성남시 수정구	신영수
정당명	한나라당	

공약 1 성남개발공사 및 도시계획연구소 설립 추진

- 성남개발공사를 설립해 수정구 지역에 설립해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연구소도 만들어 수정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공약 2 고도제한 적용조치 완화

-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고도제한 적용 조치를 기존 45M에서 60M 이상으로 완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3 재개발 이주단지 추가확보

- 재개발 2·3단계에서 부족한 이주단지를 국민주택기금 및 신규택지 등을 활용해 추가 확보하는 등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를 배려하는 안정적인 재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4 재개발특별법 및 대도시특례법 제정

- 성남시의 열악한 도시환경에는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재개발특별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도로, 주차장 등 주민들의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을 줄이겠습니다.
-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권 등의 권한을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대도시특례인정법안’을 제정하겠습니다.

- 실용의 시대를 맞아 성남비행장을 물류공항기지로 병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성남경제에 큰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명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성남시 구도시 재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 성남은 강제이주로 형성된 도시로써, 현재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함.
- 성남시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 당국과 주민 간의 협의가 절대적이며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함.
-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고도제한 완화 범시민대책회의 상임대표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냈으며, 지난 17대 국회에서 “구도시재개발법”을 대표발의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용적률 완화, 재개발 사업 국고지원 근거 마련,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 기준 완화 등을 이루어냈음.
- 성남시재개발 및 서울공항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을 활용하여 주민과 행정 당국 간의 원만한 소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재개발과 관련된 입법 활동 역시 계속사업으로 발전시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성남 구도시 발전에도 앞장서겠음.

공약 2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40년 전 도입된 수정법은 수도권내 인구와 산업집중 방지라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만 약화
 - 정부주도의 각 종 수도권 규제정책 이후 수도권의 인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
 - 수도권내 공장의 지방이전 효과와는 무관하게 해외탈출 기업 양산
- 또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을 강제이전하면서 수도권 규제 정책을 고수
 - 이는 수도권의 발목을 잡아 놓고 지방발전을 하겠다는 논리로 동반성장이 아닌 함께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
- 선진국에서 이미 포기한 낡은 정책고수로 세계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
 - 영국, 80년대에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 일본, 90년대 폐지

- 한국의 국가경쟁력 : '92년 29위 → '04년 35위

■ 대안

- 이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대체입법 필요
 -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도권의 광역적·계획적 관리체제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전략으로 전환

공약 3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규제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여전히 규제대국이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임.
 -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 145개국 중 창업관련 인허가 절차 수에 있어서 104등. 창업비용은 OECD 평균 2배, 창업소요시간 호주 2일, 미국 5일, 홍콩 15일에 비해 한국은 22일로 나타났음.
 - 규제혁파를 부르짖던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2002년말 7,837개이던 정부규제가 2007년 말엔 8,084건으로 무려 360개 증가했음.
-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규제, 예외적 허용'의 규제문화는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제약하고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제가 스위스 IMD 조사대상국 평균 수준으로만 자유화 되었어도 경제성장률이 매년 0.47% 더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
 - 세계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깔아놓고도 방송통신 융합이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것은 관료들의 뒷다리 잡기 때문임. 규제권자들의 권한 지키기와 조직이기주의는 중복규제와 한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원인임.

■ 대안

- 정부가 할 일은 시장개입이 아니라 시장규율을 집행하는 심판역할에 만족해야 함
 - 정부가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간섭활동을 줄임으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면 부정부패는 줄어들고 국가생상성과 기업경쟁력은 향상될 것임.
- 규제집행도 영성한 사전규제에서 엄격한 사후감시체제로 바뀌어야 함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절반이상을 폐지해야 함.
- 기업설립, 공장설립 등 절차의 간소화

- 21세기 핵심기술인 BT는 IT와 더불어 산업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BT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보건·의료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시장은 2005년 기준 약 78조원으로 세계시장의 1.2%에 불과, BT산업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 2008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은 세계 한의약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음. 2006년 기준 세계한의약 시장규모는 1,500억 달러(약177조)중 중국은 60%이상을 차지하나,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한 실정임. 세계 한의약 시장의 10%(150억 달러=18조원)점유 시 한방산업은 신성장동력이 될 것임.
- 본 의원은 국회에 등원하기 전 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바 있어, 의료계의 생생한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음.
 -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험을 통해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함.
 - 따라서 의사협회 회장 역임 경력과 제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중앙선대위 보건의료위원장 경험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의 국가전략산업육성에 일조에 기여할 것임.

-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민연금과의 괴리로 인해 통일된 연금 체계의 마련이 필요
 -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자보전액이 급증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여 운영하겠음.
-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넓히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교통신당을 지급하겠음.
-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성 강화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체계를 통해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에 기여 하겠음.
- 또한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 기반도 매우 취약함.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선진복지모델을 마련하고 실현해 나가야 함.

-
- 저소득층의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교육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넓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국가책임복지제도를 추진하며,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 훈련으로 자립을 유도하겠음.
 - 최저기본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 의료비보장제도를 추진하여 민생고 해결에 앞장서겠음.
 -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실시

선거구명	성남시 분당구갑	고흥길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도시고속화도로(매송~별말) 지하화 완공**

- 본 사업은 분당~수서간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음과 분진등에 따른 피해로 인한 대책이며, 본인의 지난 공약중의 하나로 추진된 지역숙원사업이다. 1.9km 구간 6개차로의 지하화를 계획 중이며, 약 2천6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미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으며, 현재 관련기관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서 재원확보가 사업의 관건이다. 본인은 본사업의 추진에 앞장섰으며, 이제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한 예산확보의 노력을 통하여 차질 없이 조속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약 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현재 분당구 보육시설은 6개소로 636명(분당구 거주 5세미만 아동 26,779명)이 이용중에 있다. 수정구 14개소, 중원구 17개소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수이며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원활한 사회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보가 필수이다. 또한 믿을 수 있고 우수한 시설을 겸비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가정 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비의 경감과 육아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6개소에 머물고 있는 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대 10개소 이상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약 3 **국제적 규모의 불링장 건립**

- 탄천(야탑)종합운동장 내에 국제적 규모의 불링장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하도록 할 것이다. 이후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을 쌓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하여 주민건강을 위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
기

공약 4 판교IC 교통체계(진출입로) 개선

- 판교요금소에 서울방향 진입 전용도로를 조성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접합구간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출퇴근 차량의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부산에서 판교방면의 우회전 차로를 증설함으로써 판교요금소 교통체증을 완화할 것이다.

공약 5 맹산 생태공원 조성

- 맹산 일대 생태공원 및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을 추진할 것이다. 약 2백2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570,000㎡ 면적으로 조성될 것이다. 지역 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여유로운 휴식공간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선거구명	성남시 분당구을	임태희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분당분구, 지역주민의 뜻대로**

- 07년 12월 성남시의 선부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분당의 분구 방법은 단 한 번의 용역과 여론조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역 여론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이 문제는 많은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의 과정을 철저히 거쳐 행정편의를 위한 분구가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2 **신분당선 미금 환승역 설치**

- 현재 공사중인 신분당선의 2차 구간인 정자-광교노선이 결정되면 현재 정자환승역에 추가 하여 미금 환승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금 환승역 사업은 이번 대선 공약에 채택된 바, 이를 공약 사업으로 꼭 추진할 것이며 성남시에도 중장기 예산으로 1,250억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미금환승역 설치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3 **산뜻하고 쾌적한 분당을 만들겠습니다.**

- 탄천지류인 분당천·동막천의 주변 환경 정비
 - 율동공원 저수지에서 시작하여 분당동을 관통하여 1.98km를 흘러 탄천으로 가는 자연형 하천에 2,345백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수생식물 식재, 산책로 정비하여 수질을 개선하여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
 - 푸른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공간으로 조성, 도심 속 생활주변에 쉽게 접하며,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보행자도로를 특색 있는 녹화거리로 조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 정자, 오리역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 단독주택단지 내 주차공간 확대

- 다목적 노인복지시설 건립

공약 4 **빠르고 편리한 분당을 만들겠습니다.**

- 용인-서울(양재)간 고속화도로 개선을 통해 분당으로 진입하는 용인의 교통량을 대폭 감축하여 도로정체를 해결하겠습니다.
- 미금역 사거리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 미금역 주변의 버스, 택시등을 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교통 환승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미금역이 실질적인 환승역으로써 면모를 갖추어 대중교통의 환승 편의성을 높ی겠습니다.
- 미금역 금곡IC주변 교통혼잡 개선
- 풍덕천-서울 시계 간 국지도 23호선을 판교 입주전까지 8차선으로 확장 개통

공약 5 **교육과 보육의 1번지 분당을 만들겠습니다.**

-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
 - 많은 학교가 개교 15년을 넘기면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구미동 관내에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교육편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7대 국회의원 임기 중 추진해온 구미고등학교 건립을 완성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성남시가 98억원 매입하고, 3월 용도변경을 마침으로써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교 하여 구미동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유휴시설을 활용한 보육지원
 - 공동주택, 교육시설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지원과 법적, 제도적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선거구명	의정부시갑	문희상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의정부 발전을 위한 예산 1조원 확보**

- 의정부 발전을 위한 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습니다.
 - 재정자립도가 약한 의정부시의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될 미군기지 반환부지 개발과 광역행정타운 개발, 호원 IC 개설에 4,0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시민공원과 첨단 산단까지 가세한다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합니다.
 - 이에 문희상 후보가 대표발의하고 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과 후보의 중앙정치에서의 영향력, 기타 의정부 발전지원을 위한 법제를 총동원하여 1조원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약 2 **호원 IC의 개설**

- 의정부시민이 바라는 호원IC를 반드시 개설하겠습니다.
 - 이미 정부에서 2Km 내 IC중복 불가, 터널과 터널 사이구간 사고위험성 등으로 불가방침을 결정했으나, 문희상 의원은 건교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불가방침의 전면재검토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제 교통영향평가의 재실시와 IC설치를 위한 추가예산의 확보, 법률적 문제가 발생시를 대비한 근거법제의 정비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호원 IC를 반드시 개설할 것입니다.

공약 3 **가능-녹양 역간 철도부지에 체육공원 조성**

- 가능-녹양 역간 철도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가능-녹양 역간 철도고가화 사업으로 확보된 철도부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 이미 문희상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부지의 무상임대를 이끌어냈고 시에서도 흔쾌히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시켜 지역 어르신들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자란 예산이 있다면 문희상이 끌어오겠습니다.

공약 4

초현대식 회룡역사 신설

- 노후화된 회룡역사를 초현대식 회룡역사로 신설하겠습니다.
 - 현재의 회룡역은 하루 이용객 2만 5천명 정도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간이역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과 지속적인 교섭을 해왔으며 초현대식 회룡역사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 회룡역은 이용승객 20만을 대비하는 현대적 역사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 신설된 녹양역에 이어 회룡역을 초현대식 역사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공약 5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 2008년 드디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현실적인 대안에는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문희상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령연금을 끌어올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유있는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문희상이 만들겠습니다.

선거구명	의정부시을	강성종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지하철 2개 노선을 임기내 착공하겠습니다.**

- 국가계획에 의정부 전철 2개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7호선 대체 노선인 철원선(의정부~포천~철원, 54Km)부터 우선 추진하여 임기내 착공하고, 8호선 대체 노선인 도농선(의정부~남양주~구리 도농, 20Km)과 별내선 중 한개 노선을 임기내 착공하겠습니다.
- 개요: 2007년 12월 국가 계획(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건교부)에 확정된 철원선(의정부~포천~철원), 도농선(가능역~의정부~남양주~구리) 확정
- 7호선 대체 노선인 철원선부터 우선 추진하여 장암~신곡1동, 신곡2동~자금동~용현동~민락동~포천까지 임기내 착공(이후 철원까지 연장)
- 도농선과 8호선 중 우선 순위를 따져 임기내 착공하되 최소한 실시설계는 완료
- 해당기관 : 국토해양부
- 소요예산 : 일반철도 원칙, 광역철도 수용(의정부 구간의 12.5% 부담)
- 노선위치 : [7호선 대체 철원선] 장암~신곡1,2동, 자금동~용현동~민락동~포천~철원(54Km)
- [도농선] 가능동~자금동, 신곡2동~용현동~민락동~남양주~구리 도농(20Km)
- 사업기간 : 2008~2012(지하철 착공)

공약 2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고산동 미군부대 부지(캠프 스텐리)에 IT, BT, 환경, 로봇 산업 등 공해없고 쾌적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의정부를 산업도시, 정주도시,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해당기관 : 지식경제부, 경기도
- 사업기간 : 2011~2012(유치기업 확정)

공약 3 **행정타운 조기 입주시키겠습니다.**

경
기

- 금오동 미군부대(캠프 카일 시어즈에세 이온) 부지에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경기 제2교육청, 경기 제2경찰청, 법원, 검찰청 등 11개 행정기관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여 의정부를 행정복합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해당기관 : 행정안전부, 국방부
- 사업기간 : 2008~2011(사업 확정)

공약 4 4년제 명문 종합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 정부 소유로 땅값이 변동 없는 고산동 미군부대 부지(캠프 스텐리)에 광운대와 별도로 명문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하여 의정부를 대학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해당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기간 : 2011~2012(2010년까지 명문대학 유치 확정)

공약 5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

- 의정부 면적의 78%는 개발제한구역, 51%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용 면적은 20%에 불과합니다. 의정부 발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대폭 해제하겠습니다.
- 해당기관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경기도
- 해제위치 : 신곡고가~만가대 3거리 남쪽지역 등
- 사업기간 : 2011~2012(사업 완료)

선거구명	안양시 만안구	이종걸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만안을 주거·교통 으뜸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체계적 추진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
-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한 만안의 도심속 주차환경 개선
-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관 유치
- 만안구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공약 2 **만안을 교육·환경 으뜸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양질의 원어민 교사 배치를 통한 영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 학교급식을 친환경 급식으로 개선
- 만안지역 초등학교와 경인교대 현장실습 연계한 시범교육 추진

공약 3 **만안을 복지·문화 으뜸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 저소득 장애인 최저 생계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노인종합복지시설 건립을 통한 어르신 복지 증진
-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처방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 석수, 박달, 만안 도서관 및 경인교대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문화교실 활성화 방안 마련
- 모자가정을 비롯한 편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책을 마련
- 안양예술공원(유원지)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개최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약 4 **만안을 자연환경 으뜸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경
기

-
- 삼덕공원, 충훈도시자연공원 등 도심공원 건립
 - 수암천, 삼막천, 삼봉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 자전거도로 재정비를 통한 녹색 자전거 도시 추진
 - 안양천 유역에 안양천방문자센터 건립
 - 서울대 수목원 개방 추진

공약 5

मान을 치안 · 방법 으뜸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 만안경찰서 조기 착공
- 안양법원 · 검찰청 완공
- IT치안시범도시 사업 추진
-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
- 아동,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선거구명	안양시 동안구갑	이석현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한반도 대운하 절대 반대**

- 한반도 대운하 총 건설비 17조, 4년내 완공 가능, 물류비 1/3 절감, 서울에서 부산 까지 24시간 내 주파 가능 등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대운하핵심자문요원들 중에 조선공학, 항해학, 물류학 등 운하건설에 있어 핵심이 되어야 하는 전문가들은 배제되어 있으며, 또한 대운하자문요원들의 전망도 제각각이라 일관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운하의 기본 목적인 물류, 그 사업성은 건설사들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런데, 특별법만 제정되면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참가하겠다고 합니다. 환경, 문화재 문제는 최소화해주고 대신 배후택지 개발권을 건설사에 주면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로 물들어 서민의 허리만 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산의 환경파괴대재앙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충분한 검토없는 밀어붙이기식 대운하 사업, 이석현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공약 2 **흉악범 처벌, 아동보호법 강화하고 CCTV설치**

- 이번 안양에서 발생한 혜진, 예슬이의 실종 사건만을 보더라도 아동들이 얼마나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지. 아동유괴사건에 있어서 현재의 경찰조직과 법조망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통계로 봐도 아동실종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등하교길 후미진 곳에 CCTV 회로망을 설치하여 위험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아동관련법률과 아동복지선진구그이 아동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흉악범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동보호법을 만들겠습니다.
- 현재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없어 청소년 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을 아동에게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취지나 적용대상이 아동과는 괴리가 있어 아동보호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시론입니다.

공약 3 **새로운 전철역 추진**

경
기

- 안양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절반이 넘는 도시입니다. 미래 안양은 베드타운(bed town)을 넘어서 컨텐츠,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 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안양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 이석현은 성남-인덕원-안양역-광명 KTX역(총28.1km)을 잇는 새로운 전철을 추진(소요예산 1조5000억원 예상)함으로서 지식기반 산업도시 안양의 초석을 깔겠습니다.
 - 동안구(인덕원, 관양, 비산)과 만안구(안양일번가)의 원활한 왕래
 - 관양동·비산동 일대 주차난·교통난 해소 기대
 - 보다 여유로운 관양대로
 - 서울과 접근성 배가
 - KTX연결로 전국 사통팔달
- 관양·비산 일대의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과 함께 새로운 전철은 우리 동안양 지역이 경기남부의 중심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당초 국가철도망 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던 새전철을 새정부의 계획재정부는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대상에서 빠뜨렸습니다. 당선하면 4선 의원의 힘과 탁월한 조정력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4 휴대폰 광고성 메시지 차단

- 최근에 급증한 휴대폰 광고성 문자메시지(스팸메일)의 원인이 각 통신사 및 금융업체의 해킹을 통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현재의 휴대폰 스팸문자는 그 수단이 점점 지능화 되어 불쾌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화버튼이나 확인버튼만 눌러도 과금이 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휴대폰 광고 메시지 차단을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정보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예외규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부여된 스팸문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구축권을 의무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하여 광고문자의 수신여부를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50배 벌금부과 등 처벌법을 강화하는 등, 원치않는 휴대폰 스팸문자 공해를 이석현이 말끔히 씻겠습니다.

공약 5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광고피해 규제 강력히

-
- 2007년 온라인 쇼핑몰 거래규모는 총 15조 7,656억원입니다. 전자상거래는 편리함으로 인해 그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그 피해액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전자상거래 구조의 특성상 피해의 구제가 쉽지 않으므로 상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개정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조항들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 저 이석현은 2006년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대형 인터넷포털들이 부정한 방법(부정클릭)으로 영세 온라인 광고주들의 이득을 침해하는 것을 밝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조성에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이런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석현이 가칭 「전자상거래에관한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인터넷 상거래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매년 급성장하는 온라인 상거래의 소비자와 영세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확실한 법적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선거구명	안양시 동안구을	심재철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인덕원 - 병점 간 전철 개설**

- 동탄 등 2기 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경기도 인구의 서울 출퇴근, 관광레저 활동 증가 등으로 수도권 교통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2003년도에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인덕원 - 병점 간 전철」사업이 구상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이 낮아 일차적으로는 사업구상이 백지화 되었지만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추가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경기지역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대중교통망의 부족 및 연계교통이 미흡하고, 상습적인 교통난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호계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인덕원 - 병점 간 전철」사업은 향후 10년 동안 2조3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이 구체화되면 노선이 반드시 우리 호계동 지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안양시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까지 해소하겠습니다.

공약 2 **교도소 문제 해결(이전, 재건축 등)로 호계사거리 일대 활성화**

- 안양교도소 문제는 호계동 지역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 시민의 오래된 숙원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주민들의 넘비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른바 ‘혐오시설’인 교도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에는 현실적인 장애가 적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호계동 지역의 발전이 계속 정체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 지난 17대 국회 임기동안 저는 법무부에 대해 교도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 등을 묻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책임 있는 여당의 3선 국회의원이 되어 교도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전은 물론이며 리모델링 방안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법무부에 실질적으로 강도 높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또한 교도소 문제 해결과 함께 호계신사거리 주변을 활성화하여 침체된 호계동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공약 3 **평촌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 저는 지난 2003년도에 철도청과 경기도, 안양시를 적극 설득하여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였던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 저는 당시 범계역과 평촌역 2곳을 동시에 공사하고 싶었으나 그러자면 안양시 예산 40억원을 투입해야 하므로 시 재정형편이 허락지 않는다는 안양시장의 의견을 존중해 순차적으로 설치키로 하고 우선 이용자가 많은 범계역부터 설치키로 했던 것입니다.
- 이제는 평촌역 순서입니다. 평촌역 또한 가파른 계단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약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 따라서 올해부터는 에스컬레이터가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철도공사, 경기도,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예산확보까지 바라보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약 4 **호계·평촌동 재개발, 재건축 지원**

- 호계동 및 평촌동은 기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해 재정비 사업 추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큼니다.
- 따라서 호계동 등의 지역에는 재개발 사업이, 평촌동 등의 지역에는 재건축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약 5 **「안양 노인복지센터」 시설 확충(호계2동)**

- 안양 지역의 노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호계동, 신촌동,

범계동 등의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안양 노인복지센터」는 시설이 협소하여 어르신들이 맘 편히 쉬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당 등 시설을 반드시 확충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선거구명	부천시 원미구갑	임해규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원미뉴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내에 거주하시는 서민과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입자와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분담금이 지역주민의 재입주를 가로막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정책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용적률상향 및 기반시설을 정부지원으로 건설토록 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복개천을 복원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명품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2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품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원미갑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미갑의 교육환경을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특목고를 유치하고 서민을 위한 교육 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원미갑 모든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및 영어체험 거점학교를 설치하겠습니다.
- 역곡지역에 (가칭)부일고등학교를 2009년에 착공하여 2011년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학생들이 원거리를 통학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장학제도와 대학등록금 소득연계 후불제 도입으로 대학학비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공약 3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를 만들겠습니다.

- 부천은 서울과 인천 더 나아가 서해안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의 질과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하여 부천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하철 7호선 부천연장구간의 예산을 확보하고 광역철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사 ~ 고양간 전철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멀뚱길 석왕사 앞에 (가칭)원

미역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된 소사역사를 지하화 하고 쇼핑센터 설치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공약 4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원미갑지역은 수도권내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가난한 서민이 모여사는 지역입니다.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은 편리하고 상인들의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당동과 역곡지역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공약 5 어르신과 어린이의 복지향상을 실현하겠습니다.

-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의 노인들과 맞벌이가정 저소득층가정의 육아를 지원하여 복지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을 통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0~5세 영유아의 보육비를 국가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여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명	부천시 원미구을	이사철
정당명	한나라당	

공약 1 **지하철 7호선 예산 시민부담 대폭 줄이겠습니다.**

-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공사는 부천시가 총 사업비 9,000억원의 40%를 부담하는 ‘도시철도’ 방식입니다. 부천시 부담액이 3,600억원에 이릅니다.
- 본 후보는 이를 광역철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천시 부담액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시민의 세금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비 배정의 지연으로 이미 2년 가까이 늦어진 공기도 조속한 예산배정으로 최대한 빨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약 2 **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조속히 시공하겠습니다.**

- 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을 조속히 시공하여 인접 주민들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 구간 : 부천구간 3.01km
 - 시설규모 : 방음벽(5~6.5미터), 저감장치, 저소음포장
 - 사업비 : 396억원
 - 시행방법 : 08. 4. 3 주민청구 손해배상소송 판결후 도공 및 토공과 협의하여 선시공 후정산 방법으로 조속 추진

공약 3 **중동역세권과 구시가지 재개발을 추진하고 송내역, 중동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중동 역세권 개발과 구시가지 재개발을 추진
 - 중동역광장 등 주변 개발을 조기 추진하고 약대, 중동의 구시가지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송내역, 중동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 하루 십여만명이 이용하는 송내역과 중동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겠습니다.

공약 4

특목고, 자사고 등을 적극 유치하고 가톨릭대에 이공계 대학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특목고, 자사고 유치
 - 특목고(외국어고) 유치와 함께 새 정부의 '공교육 다양화' 정책에 맞춘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여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 이공계대학 설치
 - 가톨릭대학교에 이공계 대학을 설치하여 관내 기업들의 인력양성과 산학협동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약 5

중동, 상동 재래시장의 고객지원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
 - 중동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늘려가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행, 재정적인 지원 시책을 확대하여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선거구명	부천시 소사구	차명진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소사뉴타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명품도시 소사 건설**

- 뉴타운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이 목표임.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구조 개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복지· 문화시설 확보등 공공부분의 역할이 증대됨.
- 2007. 3. 12 소사구는 경기도로부터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6월 초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소사구가 건교부 시범뉴타운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
- 경기도 및 건교부 시범뉴타운 지구 선정을 위해 본인은 물론 부천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시절 “소사 뉴타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07. 11. 한나라당 당원 대 상 발언 중), “79만평 뉴타운개발이 완료되면 소사구는 천지개벽할 것”(07. 9 차명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 등을 통해 소사 뉴타운의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약속 한 바 가 있음.
- 뉴타운이라 함은 도시재정비 혹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시 소사구와 같은 구도심의 체계적 개발 을 위해 현재 법령하에서 가장 획기적인 도시개발 방식임. 구도심으로서 도시기반시설 미흡에 따른 주거환경 에 대한 불편함, 불만족도의 증가는 거주자들의 이주를 촉진하여 도시의 공동화와 중산층의 약화에 따른 주 거 및 상업지역의 슬럼화등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사구가 뉴타운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낼 것 임.
- 소사재정비촉진계획 추진 일정
 - 2008. 4월 : 주민공람
 - 2008. 4~5월 :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08. 5~6월 : 공청회
 - 2008. 6월 : 촉진계획(안)확정 및 경기도 신청
 - 2008. 7~8월 : 경기도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재정비

- 수도권 규제는 그 취지가 수도권의 집중개발로 인한 지방흡대 방지와 수도권 과밀화 억제에 있음.
-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도권에 과도한 규제 정책과 혁신도시, 행정중심도시 등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취했음에도 오히려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일반론적임.
-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원론적 입장과 차별화된 정책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고민, 치밀한 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선진 각국에서 기 실행하여 실패한 수도권 규제, 행정수도이전등의 정부개입 반시장적 정책만을 되풀이 주장해온 것이 과거의 사례임.
- 이로인해 수도권에 대한 집중완화와 전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효과적 달성에 대한 의문의 제기과 함께 기업의 탈대한민국 현상의 가속화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결국 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청년실업증가, 고용불안정 가속화, 경제성장 저하등의 부작용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친기업정부, 시장중심의 경제 정책을 통해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대되는 세수증대를 통해 만들어진 예산을 지방에 재투자 함으로써 선순환 균형발전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구체적 공약
 - 경기도에 대학, 공장 신설 허용
 - 국민불편 초래하는 군사보호구역 축소, 자연보호구역 축소
 - 공공기관 이전 반대
 - 광역전철망과 도로망 확대를 통한 물류비 감소와 이동의 편의성, 신속성 제고

- 부천시는 1973년 시승격 당시 인구 7만의 소도시에서 현재 인구 87만명에 이르는 수도권 의 대표적 중소도시임.
- 그러나 짧지 않은 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교육환경에 대한 부족한 인프라와 특히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정책으로의 교육정책의 변환에 따라 현재 부천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학교 부재하여 많은 시민들의 교육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매년 300~400여명에 이르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관내가 아닌 관외지역으로 교육적

기대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부천시역관내 우수한 인재들의 유출과 이를 통한 인적자원의 고갈에 따른 지역발전의 한계성등 미래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교육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지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현실과 지역내 우수인력의 관외 유출방지 이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발전 인재관리는 지방자치정책에도 부합하는 정책 이라는 판단에서 특목고, 기숙형 공립고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 구체적 공약
 - 소사구에 특목고, 기숙형 공립고등을 유치하여 명품교육도시로 탈바꿈.
 - 부천공고 등 특성화고교 적극지원에 따른 우수 산업인력 배출
 - * 교육형태의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공교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 특목고 등이 부유층을 위한 제도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저소득층 자녀들을 입학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장학금 지급하여 가난의 대물림 혹은 교육의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안을 추진하겠음.

공약 4

시민 공원화 사업 추진

- 소사구는 성주산, 거마산, 범박산등 자연환경을 배후지로 구성된 도시로서 도심의 중심이 짧고, 기존도시라는 도시적 한계성에 따라 위치적으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원미구 중앙공원, 오정구 오정대공원등과 같은 형태의 평면형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특히 소사구의 60%가 뉴타운 지역 지정되어 건물 고층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녹지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것임.
- 구체적 공약
 - 성주산, 범박산 일대 미개발 지역을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친화형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재개발 완료시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쉼터를 제공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조성된 숲과 함께 거닐며 운동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소사 완성
 - 소사대공원(생태공원)의 단계적 공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녹지, 평면형 공간부족의 보완등을 이루어 냄으로써
 - 공원화 사업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8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직접 찾아가 소사 지역에 대한 예산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을 얻어내었듯이 발로 뛰고 지역을 땀으로 적시겠다는 각오와 집권여당의원, 경기도지사와의 정치적 관계등을 심분 활용

하여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내겠음.

공약 5 부천역·소사역·역곡역의 상업중심지화

- 경인국도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가 조성된 소사구에 있어 역세권이라 함은 단순한 교통적 기능외에도 상업 및 도시발전적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국도에서 각 역사로 진입하는 도로 겸 역 광장이 협소하여 도시발전의 장애물 혹은 교통혼잡의 원인자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를 확장·조성함으로써 교통소통의 원활성과 도시미관 제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여 소사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 공약
 - 부천역, 소사역, 역곡역의 광장 확장
 - 남, 북 간 교통소통 위한 남북관통도로 개설 및 지하상가 건설
 - 역곡역 광장확보를 위해 뉴타운 정책과 연계, 창의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녹지공간을 조성

선거구명	부천시 오정구	원혜영
정당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오정구 통과 지하철을 2016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 BTL로 추진 중에 있는 오정구 통과 지하철(소사~대곡)이 '09년 기본설계, '11년 실시설계, '12년 착공, 2016년 개통될 수 있도록 함.
-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비하여 서해선철도(예산~원시~소사~대곡)가 남북 물류철도수송망으로 역할 할 것이므로 이미 국가철도로 추진 중에 있는 소사~원시선의 연장선에 있는 오정구 통과 지하철(소사~대곡) 역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철도로 추진되도록 함.

공약 2 고강뉴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공도제한지역 재개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정비촉진법(뉴타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공항공도제한지역 재개발 지원특별법 제정
 - 건폐율·용적율 규정의 완화·적용
 - 도로·공원·문화·체육 등 공공기반시설 국가에서 우선 지원
- 도시재정비촉진법(뉴타운법) 개정
 - 이미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같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권한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부천시 등 대도시의 장에게 직접 부여함으로써 행정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공약 3 오정구에 외국어고를 유치하겠습니다.

- 부천은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간 교육여건이 격차가 심하여 교육 수요자의 교육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문교육기관이 요구되고 있음.
- 여월택지개발지구 또는 여월정수장내 일반고 부지를 활용하여 외국어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위한 외국어고를 유치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욕구를 충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함.
- 또한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을 통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오정구 관내 초·중·고교에 교육환경개선 예산(국비)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공약 4

2011년 오정구 관내 경찰서를 개청하겠습니다.

- 2007년 오정구 관내 경찰서 신설을 확정하고 국가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총 400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지원하여 2011년까지 경찰서 신설을 완료함.
- 오정구 일원의 대단위 기술산업단지과 유통단지 개발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2005년 오정구 소방서 신설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경기도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청될 수 있도록 함.

공약 5

2010년 오정동↔원종동↔화곡역간 급행버스를 개통하고, 까치울초교~남부순환로간 광역도로를 완공하겠습니다.

- 화곡역~원종동~오정동을 경유하는 오정큰길에 버스전용차로제에 전용신호체계를 갖춘 첨단 고속·직행버스시스템인 급행버스체계(BRT) 구축을 위하여 2007년 48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국가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2010년 개통함.
-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까치울초교~남부순환로간 광역도로의 신속한 완공을 위하여 2007년 국가예산 5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국가예산지원을 통해 2010년 차질없이 개통되도록 함.

선거구명	광명시갑	백재현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근거(필요성)

- 현재의 도촉법 일부 조항이 서울시와 경기도 대부분의 뉴타운 고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이 상당부분 늦춰질 가능성 상존
- 기준이 높은 노후도와 호수밀도의 적절한 비율로의 개정 필요
-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 호수밀도:70호/ha 이상 (경기도기준) △ 노후도: 50% 이상 △ 접도율: 30% 이상 △ 과소필지: 50% 이상의 조건이 되어야 재개발이 가능함.
- 2006년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은 노후도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20% 완화시킴.
-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촉진지구 고시지역은 노후도와 호수밀도에서 기준에 맞지 않음.

■ 주요내용

- 현재 도촉법에 의한 재개발이 서울시 은평구, 경기 부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현실에 맞는 적절한 기준으로 완화할 필요성 있음.

공약 2 원주민재정착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근거(필요성)

-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각 도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음.
- 그러나 재개발이전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사업이 완료된 개발 이후 높은 추가 부담금 등으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이 현저히 낮음. (길음 뉴타운의 경우 17.1%, 세입자 임대주택 거주율 40%에 불과했음)
- 가옥주는 재입주와 세입자들의 임대주택 거주율을 높여야만 그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뉴타운이 될 것임.

-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세입자들은 계속 수도권 외곽으로 조금씩 밀려나갈 가능성 상존함.

■ 주요내용

- 가옥주에게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장기 용자 혜택 제공
- 영세 자영업자는 보증금외에 기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임대주택과 연계)
-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적은 비용은 실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

공약 3

백재현이 기틀을 마련한 60만평의 광명역세권을 개발하여 광명시를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근거(필요성)

-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체계적인 역세권개발과 서울 및 인천국제공항 등과 연계교통망을 구축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직동·소하동, 안양시 석수동·박달동 일원 약 59만 1천평 부지에 중계교류, 문화, 산업 및 환경친화적인 복합거점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임.
- 광명역을 중심으로 국제교류지구, 첨단음악단지를 조성하여 국제첨단도시로 육성시켜 생산 및 고용창출을 증대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 2003년 12월 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4년 11월 26일자로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현재 보상중에 있고, 실시계획을 작성 2005년 12월 27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2008년말에 준공할 계획

■ 주요내용

-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주변지역의 활성화 도모
- 2004년 개통된 광명역 주변 개발로 기반시설 이용효율 극대화 도모
- 공공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

공약 4

여의도-광명-안산을 잇는 신안산선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고속철도 광명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건설 조기 착공 추진
- 신안산선은 선부~광명~구로공단~여의도~청량리를 잇는 40.8km 구간으로서

안산~광명~안양과 독산~구로공단~신풍~영등포~여의도를 연결해 서울의 서남부를 아우르는 동시에 서울역~동대문운동장~청량리로 이어질 예정.

- 신분당선과 함께 수도권을 X자로 가로지르는 광역 교통망으로 KTX 광명역을 연계하고 서남부권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노선으로 주목받았으나 3조922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2001년 추정)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04~2005년엔 설계 예산 배정 안됨.
- 건교부는 2007년 말까지 신안산선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짓고 3~4년 동안 기본 설계·실시설계를 마친 뒤엔 2010년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중이지만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신안산선의 조기 착공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편해지고 광명역주변의 역세권이 활성화 되는 효과와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임.

공약 5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근거(필요성)**

-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함.
- 즉, 지방자치의 참 의미는 지역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선택에 맡겨 놓는 것임.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정당공천에 대한 민심이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또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주민들을 출세우기 하는 처사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함. 과거에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만 정당공천을 실시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배제했으나, 2006년 4기 지자제부터 정당공천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임.

■ **이행방법**

- 17대 국회에서도 110인 여야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 심재덕, 홍준표 의원 등 여야 42인 의원발의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을 배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으나, 통과하지 못했음. 민선 4기 기초단체장의 82%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음.

선거구명	광명시을	전재희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판교-KTX광명역-월곶을 잇는 신규전철노선 및 신안산선 건설 등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판교~KTX광명역~월곶을 잇는 신규 전철 노선 및 신안산선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 신교통 수단인 경전철 시스템의 조기 추진으로 시내 교통수요를 분산시키고 KTX 광명역에 대한 광명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수도권 및 인천, 수원 등 수도권 타 도시와의 연계 도로망의 확충하겠습니다.
 - 강남순환고속도로 조기 추진, 수원- 광명 간 고속도로 건설로 수도권 거점 지역과의 광역 교통망 확충
 - 안양천 변로를 광명역사까지 확충 소하권의 교통 수요 충족
 - 광명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불필요한 교통량의 시내 진입 억제

공약 2 KTX 광명역세권 개발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신안산선, 신규전철 노선, 그리고 광명경전철에 이르기 까지 KTX광명역 연계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KTX광명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교통중심지가 됩니다.
- 이러한 인프라가 갖춰진 광명역세권에 IT-BT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는 구로공단-KTX광명역-오송 단지로 이어지는 IT-BT 벨트의 중심축이 바로 광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KTX 광명역세권 인근지역인 소하동 학운동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변경(규제완화)을 추진해, 도시발전과정에서 소외 받는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공약 3 특목고와 대학을 유치, 광명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신설특목고 유치, 각 학교별 특성화 교육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를 명품학교로 육성하겠습니다.
- 송실대학교 제 2캠퍼스 유치를 마무리, 정보과학전문·중소기업전문 대학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광명시의 고등학생 수는 2007년 12월 말 현재, 11,666명으로 중학교 학생 13,405명에 비하여 1,672명이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고등학교 부족으로 서울 등 인근으로 이사하는 학생들 뿐 만 아니라, 교육여건 때문에 주변지역으로 이사하는 인재의 유출을 줄여야 광명이 교육도시로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계속 머물러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 따라서 특목고의 유치, 광명시내 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 지원 확대, 송실대학교 제 2 캠퍼스의 조성 마무리 등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광명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공약 4 광명뉴타운을 원활하게 추진 “주거명품도시광명”을 만들겠습니다.

- 소하동, 철산동 일대에는 노후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계획의 틀 안에서 이들 노후 주택지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또한 철산·하안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져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면, 세제 지원 및 리모델링 자금 지원 등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약 5 찾아와서 살고 싶은 문화도시, 친환경도시 광명을 만들겠습니다.

- 제2의 예술의 전당을 건립해, 클래식 및 각종 대중 문화콘서트 등을 유치, 광명을 “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를 발굴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안양천변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안양천변은 광명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안양천과 안양천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연과 어울어져 시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계획을 건교부, 광명 인근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춰 실현해 내겠습니다.

선거구명	평택시갑	원유철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수도권발전 저해법안의 개정 법제화**

-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투자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특히 수도권정비법 및 각종 관련 법률등 으로 인한 경기권의 발전저해는 시정되어야 함. 정책의 실효성이 결여된 수도권규제 전략은 재검토하여 집적효과를 살리고, 지방자생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검토 되어야 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공급규제, 수도권 산업단지 국비 차등 지원, 관광지조성 면적제한, 자연보전권역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불허 등의 조항 개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제조시설 설치불가, 일정 규모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허, 골프장 신설 불가,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 강화로 공장입지규제 등의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인한 공장의 신.증설, 증축면적확대제한 등도 허용규모를 확대 시행하는 안으로 조정이 필요함.
- 주요효과는 1. 수도권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2. 수도권 첨단 대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3. 영세사업장 양산으로 인한 공장 난개발 방지 4. 수도권내 종합대학 유치 및 레저관광시설 조성으로 선진화 도시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함.
- 국회의원 임기내 법안개정을 추진하고 각종 세제지원 및 광역철도망, 도심도고속전철신설등의 수도권SOC건설축진도 아울러 추진하겠음.

공약 2 **교육명품도시 평택건설! 글로벌 인재 육성**

-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교육명품도시 건설,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은 선진화 시대로 가는 지름길이고 대다수 유권자들의 우선적 희망사항임. 정책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명품도시 평택건설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명문대학 유치 45.9%, 공교육 강화 34.1%, 특목고 유치 20%의 유권자 응답결과가 나타남.
- 정부부지사 시절 추진해온 성균관대 브레인 씨티조성사업, 한경대·재활복지대·경인교대를 통합한 경기국립대학 신설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내 평택대학과 국제대학에 평택특성과 연계된 학과개설 및 특성화 취업연계 등의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일류대학으로 육성되도록 지원 예정임. 공교육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원

- 평가제 시행,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바른인성 책임제 실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 시행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학력 격차 줄이기, 사교육비를 줄이겠음.
- 현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과 평택지원특별법에 의거하여 (가칭)평택국제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임기내 유치하여 상위1%의 우수인력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평택에서 교육받아 지역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공교육과 상생하는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음.
 -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평생학습교육시스템 정착 등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교육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음.

공약 3 **친환경 평택시민 휴식공간조성-부락산,진위천,통복천의 3G생태시민공원화 추진**

- 평택 북부지역 인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위천, 부락산, 통복천 등 기존 자연자원을 생태공원화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책 여론조사 결과 진위천의 생태공원 조성 의견 46.5%, 부락산 친환경적 보전 55.8%, 통복천 수변환경조성 49.2%로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었음.
- 진위천은 현 수변녹지 계획을 변경하여 도로망 확.포장,주차장 건립, 산책로 조성, 부교설치 및 생태학습장 조성, 4계절 축제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물길에 살아 숨쉬는 생태시민공원으로 조성 예정이고, 부락산은 인공물길 조성으로 약속터 복원, 토질에 맞는 수목 군락지 조성을 위해 단계별 식목사업 시행, 이끼류, 버섯, 조류 서식지 등 환경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시민휴식공간으로 보전하고, 통복천은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로 1급수 하천으로 복원하며 폐천부지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진위천,부락산,통복천을 연결하는 3-GREEN 시민 휴식공간 만들기 사업은 경기도 및 평택시, 각 해당 지역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기존계획을 재검토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하천법등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검토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

공약 4 **구 도심권의 뉴타운식 재개발을 통한 신·구도심간 상생발전 도모**

- 평택은 2013년 완공예정인 17,482km²의 국제화계획도시의 건설로 구 도심권의 주거 환경 슬럼화, 지가하락, 비균형적 도시형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임. 특히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신장1,2동, 서정동 일원과 지제동, 세교동 지역은 신·구도심간 균형적 상생발전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평택시는 지난 2월 도시재정비촉진예정지구 공고를 하고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한 상태임.
- 경기도의 지구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기반시설지원금의 확대지원, 개발계획수립까지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 국제화계획지구와 개발예정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신설 등을 추진
- 15,16대 국회에서 완화시킨 군용항공기지 주변지역 건축고도제한으로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케 한 점과, 도로망 신설사업 등은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음.
- 또한, 지제동, 세교동의 도시개발사업 추진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부도심권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진위, 송탄, 지제, 서정리역세권개발, 장당레포츠공원 건립,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재개발지원사업 들도 각 지역 주민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만히 진행되도록 법률적, 행정적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공약 5 글로벌씨티-평택국제평화 음악축제 개최

- 평택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이 있으나, 많은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낙후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어 브랜드 가치가 있는 황해권 국제평화축제 개최로 문화도시로 성장해야 함.
- 평택에서 시행되는 국책사업에 따라 경기도는 친선교류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고,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관광문화사업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 축제의 방향은 1. 미국, 중국의 경제관문으로서의 평택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브랜드화 2. 평택농악, 한국전통 음악과 중국, 아시아권의 음악과 문화, 미국의 정통 ROCK이 어울어진 글로벌 페스티벌 3. 국제평화와 우의를 다지는 외교무대의 장으로 설정하고 7월중 5일간 년1회 정례화 실시함.
- 주요효과는 1. 2007 가평 자라섬 축제 5일간 총 105억7천만원의 생산유발효과에서 입증되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다국문화간 친선교류의 장을 마련 3. 국제도시평택의 대표적 관광문화상품으로 인프라를 구축 4. 전통과 현대, 평택시민과 다국민간의 문화적 소통의 축제마당 등을 기대함.
- 금년에 각 관계자 대표로 사단법인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자부, 경기도, 평택시의 재정 지원과 민간부문의 후원으로 연 10억 규모의 비용으로 행사 개최 가능

선거구명	평택시을	정장선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평택항 경제권 3개 시·군 공동 발전 추진**

- 평택과 당진, 아산은 서해안의 중심지역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하나의 공동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평택과 당진, 아산의 산업구조가 서로 상생하고, 보완적인 관계를 맺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개 시·군이 경제측면은 물론 정서적 동일성을 확보하고, 지리적 인접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합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기관차로 도약하도록 상생과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2 **황해경제자유구역 성공적 추진**

- 평택항 배후 500만평 신도시개발을 추진하여 포승지역 620만평을 포함한 평택항권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평택의 미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택을 넘어서 세계 속의 평택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개발로 평택을 국제무역도시,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공약 3 **평택발전종합계획 확실한 추진과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 평택발전종합계획에 따른 대규모 사업들과 주민지원 사업들은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업예산의 확보 등 계획의 확실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진행중인 평택교육발전종합대책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평택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택의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고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4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수도권 명품도시로 개발,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과 이주민 지원 확대 등 보상 제도개선**

경
기

-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는 자족적인 첨단산업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친환경도시, 문화가 있는 도시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국제화계획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평택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주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양도세감면, 소액 보상 주민의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민들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개발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5

평택 농업의 첨단농업화 및 농산물 브랜드화

- 평택농업 발전을 위해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쌀, 배, 원예 등 평택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의 농산물의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평택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업소득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명	양주시 · 동두천시	김성수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7호선 연장 (장암(의정부)~양주(신도시)~포천, 건교부(안), 2026년 계획을 앞당김)

- 사업비 : 포천에서 전철기지창을 무상 제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의정부 장암 기지창(약 5만평*시가 약1천만원=약5천억)을 매각할 경우 사업비 충당이 가능함.
- 사업기간 : 건교부(안), 2026년 계획을 조기에 앞당김.
- 사업효과 : 양주신도시와 연결함으로써 양주동부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할수 있음.

공약 2 서울~동두천(포천) 고속도로

- 사업비 : 1조 517억(추정), 보상비7,203억
- 사업량 : L=53.4Km(4~8차선)
- 사업시행자 : 건교부 민자도로 사업팀(대우건설등5개사)
- 사업기간 : 2010년 1월착공~2014년을 조기착공, 운영기간 30년
- 사업효과 : 30분 시간단축, 국도3호선, 43호선, 동부간선도로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음.

공약 3 국도3호선(평화로) 대체 우회도로

- 사업비 : 6,440억
- 사업량 : L=35.1Km(의정부~동두천 : 28.7Km)6~8차로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
- 사업기간 : 2012년 완공예정을 조기완공
- 사업효과 : 동두천에서 의정부까지 1시간 거리를 20분으로 단축

공약 4 국지도 39호선 자동차전용도로

경
기

-
- 사업비 : 4,400억
 - 사업량 : L=23.1Km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사업기간 : 조기개통
 - 주민요구사항 : 현행 민간투자방식을 국비로 전환하는 것을 바람.

공약 5 | 교현(장흥)~우이(강북)광역도로 재개통

- 환경친화적인 도로(600m는 터널공법)
- 사업량 : L=6.8Km, B=20m (양주시 3.7Km서울시 3.1Km) 4ckfh
- 사업비 : 약 572억
- 사업기간 : 조기개통
- 사업효과 : 현재 서울 강북지역으로 1시간 우회하고 있는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할수 있음.

선거구명	안산시 상록구갑	이화수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일자리와 성장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입니다.

- 우리나라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19%, 약 800만명 70%에 다다른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우리 경제 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국내기업 해외이전 종합방지대책 마련
 -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등의 노사관계 합리화방안 강구
 - 이주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강화를 통한 고용창출

공약 2 아이의 웃음이 가득한 대한민국, 미래의 약속입니다.

- 2007년 현재 출산율 1.26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작아지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도 작아집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영육아 보육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저출산대책사업본부(가칭) 구성 운영
 -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출산 및 육아비용 경감
 - 기업내 보육시설 설치 및 국공립 영육아 보육시설 확대
 - 출산지원금 지역편차 축소 및 국가 지원 확대
 -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높이기 위한 운동 전개

공약 3 노년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미래의 행복입니다.

- 고령 인구 436만5000명,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사회
2018년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나라 경제 전체를 떠맡게 되는 불균형적인 사회
고령화 세대의 일자리창출, 노인복지제도 개선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겠습니다.

- 정년제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정착
- 고령화 세대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 기초노령 연금 수급액 증액 및 의료비 국가 지원
-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병원 시설 확충과 추가 건립

공약 4 수도권 역차별 없는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입니다.

-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내 기업체 27개 지난 4년간 이전 7,461 업체의 22%인 1천6백여 기업체 충청 및 해외 등 이전 추진 수도권 산업공동화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공장총량제 완화
 - 수도권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 종과세 폐지
 - 환경친화적 산업에 대한 투자 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 2단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합리적 개정

공약 5 안산발전의힘 있는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 일하기 좋은 안산
 - 양질의 일자리 10,000개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개인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시흥, 화성, 안산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리모델링
 - MTV 단지에 첨단산업기업 및 대기업 유치
 - 농어민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사업
- 행복한 안산
 - 수인선 조기 착공 및 도심구간 지중화 추진
 - 초·중교 과밀학급 해소
 - 신안산선 안산유치와 조기 착공
 - 다목적 복지시설 지원
 - 안산시민노인전문병원 지원 확대
 - 대학 종합병원 유치
 - 사동 90Block에 R&D 센터 및 복합문화단지 조기 착공
 - 안산 특목고 조기설립

- 불합리한 그린벨트 해제
- 마을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광역 급행버스 도입
- 사할린 동포 문화·복지·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생태주거단지 조성
- 깨끗한 안산
 - 해양생태관광도시 조성
 -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사업
 - 상록수역 주변 재정비
 -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문제 해결
 - 갈대숲을 비롯한 안산시 공원의 테마화
 - 쓰레기 매립장 복합체육문화시설 유치
 - 호수공원을 비롯한 안산시 공원의 테마화 추진
 - 환경교육센터 건립으로 환경도시 조성
- 즐거운 안산
 - 안산 돛구장 건설에 따른 안산시 연고 프로야구팀 유치
 - 안산 와~ 스타디움 활성화 및 안산시 프로축구팀 육성
 - 대부도 환경 마라톤 축제 개최 및 정례화
 - 다목적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 시화호 대송단지 관광단지로 개발

선거구명	안산시 상록구을	홍장표
정 당 명	친박연대	

공약 1 신안산전철 유치

- 신안산전철을 안산으로 유치하려면 신안산선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는 건설교통부를 관할하는 국회 건교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홍장표는 건설분야 엔지니어 출신이고, 건설관련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입성하면 건교위원회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
- 국회 건교위원회에 들어가 신안선이 왜 안산으로 연결돼야 하고, 안산동, 월피동, 성포동 지역으로 연결돼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공약 2 뉴타운 건설

- 서울시가 뉴타운을 건설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안산 상록을 지역의 경우 월피동, 부곡동, 일동, 이동, 안산동 지역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다. 이들 지역을 뉴타운으로 건설하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 문제는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뉴타운으로 개발할 경우 땅값이 상승하고, 주택 가격 역시 개발전보다 개발 후에 더 비쌀 것이다. 따라서 뉴타운을 개발한 후 다세대 다가구 소유주들에게 분양권을 줄 경우 뉴타운 개발을 하는 땅을 매입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민간 건설사를 선정해서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 비용을 안산시가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

공약 3 시화호 간석지 활용

- 시화호를 둘러싸고 수천만 평의 간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시화MTV라는 이름으로 시화호 북측간석지 280만평이 개발되고 있는가하면 시화호 남측에는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는 부지를 비롯 2천만 평이 넘는 땅에 대한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다.

- 시화호 간석지는 수도권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이다. 또한 바다를 가로막은 인공호수를 끼고 있어 여러 면에서 개발가치가 높다. 인천공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따라서 시화호 간석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시화호 간석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가장 효과적인 개발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안산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시화호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한 전문적인 경험도 축적되어 있는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공약 4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 이법은 제1조 목적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 하지만 이법의 조항 가운데 일부가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음으로서 국가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 이법의 18조(총량규제) ①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해 놓았다.
- 또한 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설치해 사실상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있다.
- 이는 사실상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고, 대학교를 지을 수 없도록 한 악법이다. 이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악법이다. 이법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발전이 가로막혔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는 것을 고려할 때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공약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내지는 폐지

- 이법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다.
- 이법은 문장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률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 법역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 19조 ①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명시돼 있다.
- 또한 ②에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 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다.
- 이 조항을 보면 다분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법률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 문제는 이 법률로 인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 이는 여러모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있다.
- 따라서 수도권의 기업을 강제적으로 지방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선거구명	안산시 단원구갑	천정배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안산을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 안산을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기 위해 사통팔달의 지속가능한 교육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신안산선]을 조기 착공하고, [석수골 역사]를 유치하겠습니다. [소사~원시선]과 [서해선] (안산~충남 홍성)을 건설, 남북의 기간철도망을 이어 서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화정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을 [단원 김홍도 기념 문화예술공원]으로 재조성하겠습니다. 50여개국이 넘는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사는 원곡동에 [다문화교육센터]를 건립하고, 다인종 다문화가 공생하는 [다문화체험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인구 증가로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 교육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여성근로자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립보육시설을 짓겠습니다. 노후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의료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인전용 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대학종합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공약 2 **안산을 활기찬 중소기업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을 활기찬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을 세계적인 첨단부품소재산업 공급 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노후한 공단의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첨단 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고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정비 및 구조고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첨단 대기업의 유치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행정·경영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녹지 및 주차장 확충, 도로 정비 등 공단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외국인근로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설치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한양대산학연클러스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 등 기존의 혁신연구 기반시설의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로 자동차부품, PCB 등 [부품소재산업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기술 인력의 유지를 위해 병역특례, 주택청약 가산점 부여, 학습비 지원 등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3 서민의 살림살이를 최우선으로 돌보겠습니다.

- 서민의 살림살이를 최우선으로 돌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록금 후불제]와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비싼 학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 상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차별 해소를 일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학력 및 학벌에 대한 [채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고용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 체계를 바로잡아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대형 할인매장 신규입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유통합리화자금을 확충하고, 지원금리를 현행 4.75%에서 3%로 인하하겠습니다.

공약 4 정치개혁과 부패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정당을 건설하겠습니다. 서민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국민적 동의 없는 [한반도 대운하]사업 등은 저지하겠습니다. 정치개혁과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여부 소명을 의무화하고, 소명하지 못한 부동산과 실수요 범위를 벗어나는 부동산은 별도 국가기구에 백지 상태로 처분을 맡기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의 경우,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상 3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일 이상 5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최소한 3일간의 인사청문회 기간을 보장하며, 그 대상을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미·중·러·일 등 주요국 대사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 중 치명적인 과실에 대해 민의에 의해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비리·저질 국회의원 퇴출을 위해 [국민소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경제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시장 왜곡과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원인이 되는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금융기관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재벌들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되면 국가경제의 재벌 의존도는 그 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어음제] 폐지 등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어음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나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손해 금액의 일정배율(예를 들어 3배)을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도 바로 잡겠습니다. [조세법]과 [회사법]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포괄주의를 실질화 하고, 이종대표소송제 도입, 회사기회유용 금지 등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선거구명	안산시 단원구을	박순자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재건축규제 완화 및 재건축 적극 추진

■ 공약배경

- 건축연한 20년을 경과한 고잔 1·2동과 초지동 일대의 소형 아파트 단지와 연립단지의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으로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재건축 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책제안

- 재건축 용적률의 상향조정과 층고제한의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촉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속한 진행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와 긴밀한 업무협조 추진

■ 추진 계획

- 2008년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및 안산시 등 관련기관과 재건축 조합, 도시 계획 전문가등과 함께 재건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문제점 파악
- 필요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경기도 및 안산시와 행정 절차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 구성

공약 2 수도권 규제, 과감하게 걷어 내겠습니다!

■ 공약배경

- 안산은 단지 수도권이란 이유로 많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산은 투기가 난립하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기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조합원 양도금지 등의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공장총량제 등의 규제 역시 단계적으로 완화 및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 정책제안

- 투기과열지구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그근거를 명확히공고하도록 하며
- 투기과열지구 해제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산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함.
- 시장원리에 따라 적절한 공장총량의 조정이 필요하며 점진적 완화를 추진할 것이며 필요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 확보도 필요할 것임.

■ 추진계획

- 관련법안인 「주택법」을 개정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및 해제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자치단체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도록 함.
- 적절한공장총량의 조정을 추진하여 공장총량제 완화 추진

공약 3 반월공단 재정비 및 공단환경 개선사업 추진

■ 공약배경

- 주차공간 확충: 80년대 조성당시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불법주차 만연하여 물류흐름 저해
- 도로 가로시설 정비: 가로등 설치시기가 15년이상 경과하여 노후화 되고, 선로 불량으로 인해가공선로로 임시복구하여 점등시키고 있는 상황. 또한 대부분의 이면도로에는 가로등 미설치 상태
- 단지내 도로정비: 도로시설물(보도,차도)의 노후및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나 정부지원 미흡 등으로 유지보수 절실

■ 정책제안

- 영세기업 밀집지역에 블록별 휴폐업 업체및 이전업체 부지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주차타워 확충
- 차량및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교통보조시설 설치
- 보행자및 자전거 겸용 보도를 정비하고, 부적합 가로등선로 교체를 병행하고 감전 사고 방지

■ 추진계획

- 2012년까지 20개소에 약 2,800여대의 주차가능 부지를 확보하고 필요예산의 약 60%는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추진
- 도로가로시설 정비는 도로정비사업과 병행시공하여 사업비 절감 추진

- 단지내 도로의 경우 85.2Km의 경계석 교체 및 3,400a의 보도블록 포장 필요

공약 4 악취해결! 청정안산 만들기!

■ 공약배경

- 반월공단 입주업체의 81.7%가 5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비의 재원확보가 어려움.
- 반월단지는 다양한 악취유발 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기술력 및 자금부족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 및 이행 곤란
- 녹지비중이 3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염색, 피혁 등 공해발생 업종이 많아 악취저감에 한계
- 반월 시화단지내 산업폐기물 소각 민간업체 7개소는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최소한으로 준수할 소지가 있어 공익성 확보 필요
-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실천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확대적용 실시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

■ 정책제안

- 환경개선시설 설치비용의 무상지원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되, 초과금액은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으로 지원
- 악취처리기술 연구를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 포럼 구성
- 각종 사업시 발생한 이식목을 활용하여 완충 녹지, 공원, 하천변 등에 대기오염 차단효가가 큰 교목위주로 식재
- 폐기물 소각업체 공영화에 필요한 예산은 약 2,000억원 가량 추산되는 바 연차별 추진이 필요함.

공약 5 세계속에 능력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 공약배경

- 사교육문제는 획일적인 학교교육을 변화시켜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비롯하여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안산에도 우수한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여 우수한 인재육성에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 안산에는 단지 2곳의 어린이 도서관만이 운영되고 어 전국 평균(3.4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시급합니다.

■ 정책제안

- 여당의원으로서 정부 및 경기도와 직접협약하여 자율형 사립고 및 우수 특목고를 안산에 적극 유치
- 예산 확보를 통해 어린이 도서관 설립을 적극 추진

■ 추진계획

- 자율형 사립고 및 특목고 안산유치 추진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하고 정부정책 시행 첫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안산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것임.

선거구명	고양시 덕양구갑	손범규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수도권 역차별 5대 악법'을 손질 하겠습니다.

- 고양시와 덕양구에는 대학 하나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지원도 힘이 든 형편입니다. 또 출퇴근 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확장과 포장도 쉽지 않은게 고양시와 덕양구의 현실입니다.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무공해 첨단기업도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이 만든 수도권 역차별 5대 악법때문입니다. 저는 국토균형발전 특별법 및 지역특화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고양시와 덕양구 발전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을 재개정해 지역의 세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을 부활시켜 지역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이 부활되면 덕양구내 도로를 전면 확장, 포장해 교통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약 2 덕양구를 전국 최고의 학군을 가진 '교육특별구'로 만들겠습니다.

- 덕양구에 사시는 학부모님의 한결같은 바람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학교가 없다는 아쉬움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덕양구의 학군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모든 여건이 나아질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꾀하겠습니다. 타 도시에서 덕양구로 교육 때문에 이사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덕양구를 '교육특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관내 기존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명문 학교로 육성하는 게 시급합니다. 국회에서 기존학교들의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또 외국대학 분교, 자사고, 과학고 유치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늘려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겠습니다. 우선 '노는 토요일'에 생태, 과학, 역사 체험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원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부족한 지원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또 유치원의 의무교육화를 추진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수업을 전면 확대해 영어로 지출되는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등하교길에 CCTV 설치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3

원당 뉴타운 강력 추진, 조기가시화 - 덕양구를 명품 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원당 뉴타운 건설을 고양시 대표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추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세입자 및 임대상인 생존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 서민이 배제됐던 기존의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교동과 성사동을 가로 지르는 교외선을 지하화해 지상을 공원이나 상가로 조성, 도시미관과 도시기능을 높여 주민의 쾌적한 삶과 재산 가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공약 4

덕양구를 사계절 꽃 피는 '꽃의 도시' 로 만들겠습니다.

-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산업으로 화훼산업을 육성, 고양시 대표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화훼단지 육성과 연계해 원당 화훼단지를 관광코스로 개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한강하구의 철책선을 제거하고 곡릉천, 창릉천 등과 연결해 시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화정동 국사봉 주변을 체육, 자연 생태공원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 5

덕양구 주민 불편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원당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노약자나 장애인의 보행을 쉽게 하겠습니다. 화정동과 대곡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덕양구 일대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 주민들의 여가와 이동권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빈발하는 벽제 화장터를 이전하거나 관리권을 환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양구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린벨트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과 세금을 유예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을 증진 시킬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동호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를 지역에 건립해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벽제동 군부대를 이전해 군부대 주둔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이 지역 일대를 개발하는데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통행료(일산-퇴계원)인하해 비싼 통행료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겠습니다. 관산대자동 미군공여지 주변 65km²에

대학 및 산업유통단지를 조성해 덕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버스노선을 합리화하고 노선의 신설과 증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김포공항역)을 지하철 3호선(대곡역)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2자유로의 조기건설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백석~신사동 간 백신도로 화정구간을 지하화해 교통난과 도시기능을 살리겠습니다.

선거구명	고양시 덕양구을	김태원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그린벨트, 과도한 군사보호구역 확실하게 조정하겠습니다.

- 삼송지구 브로멕스 힐사이즈, 덕은동 미디어벨리를 세계최고의 영상산업단지 조성하겠습니다.

공약 2 교통으뜸의 덕양을 건설하겠습니다.

- 주민중심의 능곡뉴타운 개발추진/ 주민편의시설 최대한 확보, 용적율 제고

공약 3 교육환경 개선

선거구명	고양시 일산동구	백성운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경의선과 신분당선을 한강 지하터널로 연결해 일산과 강남을 30분대로 생활권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일산을 관통하는 지하철 3호선으로 강남까지는 1시간30분이상 걸립니다. 도로망은 확충하더라도 결국 상암동에서 병목현상으로 도로 구실을 제대로 못합니다. 일산 교통의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결국 철도교통입니다. 한창 공사중인 경의선과 신분당선을 한강 지하터널로 연결하면 일산의 강남과 30분대 생활권이 됩니다. 일산을 관통하는 경의선은 2013년까지 완공되지만 용산에서 멈춥니다. 한편 신분당선은 현실적으로 강남에서 끊깁니다. 바로 경의선의 종점인 용산과 신분당선의 사실상 종점인 강남을 한강 지하터널로 잇자는 것입니다. 용산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동빙고동을 거치고 동빙고동에서 한강 터널로 신사동과 논현동을 거쳐 강남 역으로 잇는 것입니다. 경의선과 신분당선을 잇는 공사에는 1조18억원이 들며 이미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마쳤습니다. 일산이 강남과 30분대에 이어진다면 일산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가 됩니다.

공약 2 **일산에 국제 중·고등학교를 유치해 세계적인 인재 교육의 산실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이른바 특목고 명문중학교가 있습니다. 분당의 수내중과 함께 수도권의 3대 특목고 명문 중학교 가운데 2개가 일산에 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의 영재들이 그 뜻을 크게 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중학교 시절 전국적으로 우수했던 일산의 중학생들이 막상에 대학 진학에서는 안타깝게도 뒤로 처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우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산에 국제중, 고등학교를 유치하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산의 우수한 영재들이 등록금의 부담없이 마음 놓고 질높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생활은 물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교사들을 초빙할 것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8명 안팎으로 국어와 국사,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합니다. 일산의 청소년들이 세계의 명문대학으로 속속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공약 3 **영화·드라마 스쿨과 디자인스쿨을 유치해 일산을 문화예술 교육의 매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이제 생활예술을 교육의 중요한 영역을 받아드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활짝 펼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 날부터 일산에 영화·드라마 학교를 유치하는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일산에는 MBC와 SBS 드라마 센터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유용한 현장실습장이 됩니다. 영화·드라마스쿨에서는 연기 그리고 영화 뿐만 아니라 노래와 무용 등 모든 생활예술을 분야별로 교육하게 됩니다. 일산에 영화·드라마스쿨에 이어 디자인스쿨도 세울 것입니다. 미래는 디자인시대입니다. 디자인 스쿨은 고교과정과 함께 전문대학 과정을 세워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와 같은 산업체와 협력체계를 맺어 청소년들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고 디자인 부문을 산업으로 격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공약 4 **노인들이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기술과 소양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들을 위한 최고의 봉양은 역시 일자리를 마련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갖가지 역량을 터득할 수 있도록 가칭 노인재취업교육기관을 만들겠습니다. 노인 노동력의 활용은 단지 노인 개인의 복지를 복돋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 구조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 노인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노인병이라는 치매와 중풍입니다. 일산에는 국내 최고의 암센터가 있습니다. 일산에 국내 최고수준의 치매, 중풍 전문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일산 지역 노인들이 당장 혜택을 볼 것이고 다른 지역 노인들이 치료차 일산에 들르면서 일산 지역의 서비스업 활성화에도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틀니와 보청기 구입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약 5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여 사회적 약자도 국민성공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주변에는 장애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복돋우고 지원하는 작업은 사회적 정의이자 사회적 가치입니다. 장애우들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바로 장애우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장애우들이 일할 기회를 얻도록 장애우들이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일산에 유치하겠습니다. 또 장애우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나들이 나설 수 있도록 백마교 사거리에 휠체어용 아치형 육교를 만들겠습니다. 한뫼도서관 앞에도 역시 휠체어용 아치형 육교를 세우겠습니다. 나아가 장애우들을 따뜻한 이웃을 받아들이는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선거구명	고양시 일산서구	김영선
정당명	한나라당	

공약 1 **경제 - 일산의 재도약, 일자리 넘쳐나는 자족 경제도시**

- KINTEX 부지 내 초고층 벤처·영상미디어 타워 건설
- 여성 취업교육센터 설립

공약 2 **문화 - 풍부한 문화, 격조 높은 일산**

- 고양문화원 성공적인 완공

공약 3 **교통 - 출퇴근이 더욱 빨라지는 일산**

- 일산과 강남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공약 4 **교육 - 교육경쟁력을 갖춘 명품 교육도시 일산**

- 특목고 유치로 강남·분당을 추월 -> 국제(중)고등학교, 과학영재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유치

선거구명	의왕시 과천시	안상수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백운호수 주변을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개발

- 사업개요 : 백운호수 주변 일원의 약 129만㎡를 21세기형 지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 미래형 전원주거 문화도시로 건설
- 목 표 : 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상 도입가능한 시설 도입. 지식문화교류의 중심지, 국내 최대 친환경 주거단지, 일상의 여가와 휴양의 중심지, 문화교류의 장 등 4개 ZONE으로 개발
- 방 법 : 개발계획수립 및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 사업시행방식 및 시행자 선정을 위한 검토와 함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함. 비용마련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민간참여형 지역개발법인(SPC) 설립 등 다양한 시행방식 검토
- 비 용 : 약 7천억원(민자유치 등) / 목표연도 : 2015년

공약 2 왕송호수 ~ 백운호수 11km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건설

- 사업개요 : 왕송호수, 백운산, 백운호수를 잇는 녹지축을 연결하여 사람중심의 건강생태통로 구축,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 목 표 : 건강달리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쾌적한 숲속의 자연환경 속에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제고, 웰빙생활을 근간으로 한 시민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방 법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재원조달방안으로 향후 특별법제정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
- 비 용 : 약 8백억원 / 목표연도 : 2014년

공약 3 부곡동 스포츠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장안지구 택지개발 및 부곡지역 재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필요한 시설로 지하2층 지상 5층의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이 있는 스포츠센터 건립

- 목 표 : 여가·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생활체육 수요가 증대. 지역주민의 생활참여 여건조성을 위하여 부곡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스포츠센터 건립. 체육활동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방 법 : 국비 10억을 확보한 상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과 도시계획시설변경의 절차를 밟으며 국·도비 추가 지원모색
- 비 용 : 약 170억원 / 목표연도 : 2010년

공약 4 **과천시식정보타운 조성**

- 사업개요 : 갈현동, 문원동 일대 약 128만㎡를 첨단업무, 주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도시 건설
- 목 표 : 친환경적인 첨단지식경제기반의 복합도시 건설로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여건 확보. 지식정보산업경제기반의 문화, 교육, 주거 기능의 복합도시 건설로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
- 방 법 :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실시계획승인의 절차를 밟으며, 필요한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 효용성 확보, 토공과 지분참여방식의 공동개발 추진
- 비 용 : 약 1조1천억원 / 목표연도 : 2013년

공약 5 **과천의 주요 재원인 마권세 사수**

- 현황 : 과천시 재정의 42%(약 720억원)에 달하는 주요 재원인 마권세에 대해 조세 체계개편의 일환으로 지방세인 마권세를 국세 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고 사감위의 경마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움직임이 있음.
- 목표 : 마권세를 국세인 소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현행 지방세로 존치 시키고, 사감위의 과도한 경마산업 규제에 대해서는 사감위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규제 일변도의 위원회 활동 견제
- 방법 : 마권세와 관련있는 지역의 단체장,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마권세의 지방세 존치 필요성에 대해 대정부 건의. 사감위의 경마산업 과도 규제에 대해서는 법개정 운동으로 규제 일변도의 위원회 활동 완화
- 비용 : 비용 없음

선거구명	구리시	주광덕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 수도권 규제 완화

- 지난 4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수도권 규제정책은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어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하였으며,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64.9%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개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 10년간 소위 지역간 균형발전이 국정의 최우선을 차지하며 수도권 규제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막이 걷힐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와 함께 수도권 정비 계획을 과감히 폐기하여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완화 및 해제로록 하겠습니다.
- 그린벨트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조성지역, 자연경관 우수지역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자연환경으로 보호할 특이사항이 없는 지역에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 자전거대여소 등 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에 필요한 장소로의 개발을 유도하여 구리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약 2 |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투명하고 합리적인 뉴타운 추진

- 도심이 낙후되어 있고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도시발전계획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난개발을 개선하기 위해 인창·수택 재정비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도시기반시설까지 충분히 확충된 광역적, 체계적 개발이 진행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첫째, 경기도지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용적률을 상향시켜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재정비지구의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매, 사노동, 딸기원 등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여 친환경 주택단지를 건립하고, 임대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셋째, 재정비 후 원주민들에 대한 재정착을 위해 주택자금을 장기저리융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3 특목고(구리외고) 즉각 유치 및 특수대학 유치 추진

- 교육문제로 인해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리외고 등 특목고의 즉각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힘을 활용하여 경기도 김문수 지사와 함께 구리외고의 유치를 위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또한 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88만원 세대, 60만 취업준비자들이 다시 전문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문대학에 재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를 취업준비의 요람으로 만들 수 있는 특수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특목고, 특수대학 유치를 통해 수도권 동북부의 교육중심 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를 확립해가겠습니다.

공약 4 경기동북부 광역 교통망 구축

-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은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승객 수요를 서울 강동·강남 방면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광역교통망입니다. 이러한 별내선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입증되어 광역철도로 방향으로 잡고 있으나 국토해양부는 광역철도사업으로,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사업으로 양 부처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지연되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장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힘으로 이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구리시의 교통체계는 경기동북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출퇴근시간과 주말에 체증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동북부의 광역 교통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구리시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수도권동북부의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동북부의 한나라당 후보자들과 함께 공동공약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의 구리시 통과를 저지하고 노선조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공약 5 친환경 역사·문화의 도시 만들기

-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자호수공원 확장사업과

함께 장자호수공원을 살아 움직이는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한강과의 연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강의 어족자원을 장자호수와 한강 사이의 1.5km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직접 연결된 수로를 통한 한강의 어족자원을 장자호수로 유입시키고, 장자호수공원에서 한강시민공원까지의 산책로와 생태탐방로를 만들겠습니다. 한강의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는 장자호수공원으로 학생들에게는 산교육 장소로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옆 왕숙천변 둔치 주차장을 친환경 가족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왕숙천변 둔치 주차장을 농수산물 시장과 연계한 가족공원으로 개발하여 북부권에 위치한 주민들의 휴식공원을 제공함과 아울러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를 연결하는 자연형 보행전용 교량을 설치하겠습니다.
- 또한 구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구려, 조선 등 민족의 역사와 유물 등을 보존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 및 동구릉 조선 왕릉의 유적지를 개발하여 역사테마파크 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것은 재정자립도 40%정도의 열악한 구리시 재정으로는 어려운 일이기에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선거구명	남양주시갑	최재성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아내가 만족할 교육벨트**

- 화도영재교육 벨트 조성
 - 창현초등학교 영재학급 개설
 - 현재 추진 중인 경기과학영재고 화도 유치 및 과학단지 조성.
- 글로벌 영어교육 벨트
 - 덕소초등학교, 와부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를 영어체험시설 시범학교로 지정.
 - 평내 도서관 외국어 전용시설 설립 및 호평동 영어빌딩 건립
- 특화된 명문고교 벨트
 - 개방형 자율학교인 와부고를 집중 지원
 - 호평·호서고 특성화 고교로 건립
 - 금곡 국제 중고등학교 건립
- 남양주 칼리지스 벨트
 - 금곡시청 이전시 중규모 대학 유치
 - 호평·평내 4년제 대학 유치
 - 영화촬영소 부지 방송영상컨텐츠 관련 대학원, 대학 유치
- 평생교육벨트
 - 호평동 복합문화센터 내 실버대학 설치.
 - 평내도서관 내 평생 학습관 설치.

공약 2 **아내가 즐길 문화·예술·여가벨트**

- 남양주 대표적 문화관광 메카로 국보급 문화재 모조단지 미니코리아 조성
- 남양주 대표적 축제로 세계건강엑스포 개최
- 남양주 최초의 전문 공연장과 수영장이 포함된 호평동 복합문화센터 완공
- 경춘선, 중앙선 폐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과 문화예술 테마라인 조성
- 천문공원, 도자기공원, 삼림공원, 호만천생태하천 등의 5대 테마공원

공약 3

일하는 아내를 위한 약속

- 관내보육시설 지원강화로 엄마의 부담 경감
- 여성 취업전문 교육센터 개설
- 여성채용 목표제를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하도록 입법
- 대형마트, 백화점, 공공청사 등의 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취업 서비스 제공
- 평생교육 바우처제도 도입으로 원하는 모든여성에게 학습 및 직업능력 개발기회 제공

공약 4

아내의 일자리 5,000개를 포함 총 1만개 일자리 창출

- 국보급 문화재 모조단지 조성
 - 2,500개 중 여성 1,500개
- 대학유치
 - 3,000개 중 여성 1,500개
- 경춘선 개통과 각종 문화예술,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건립
 - 1,000개 중 여성 700개
- 호평동 산업단지를 문화컨텐츠, 교육관련 R&D단지화
 - 3,000개 중 여성 1,000개
- 건강엑스포 개최 및 사후 일자리
 - 1,000개 중 여성 500개

공약 5

아내와 함께 전철타고 서울가기, 쾌속도로 주행하기

- 경춘선 2009년 개통 및 중앙선 조안면까지 연내 개통
- 45번 화도~올림픽대로 간 무료도로 건설 추진
-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건설지원과 화도~양평간 민자도로 조기완공
- 묵현역 2009년 개통
- 조안~영화촬영소간 모노레일 설치

선거구명	남양주시을	박기춘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지하철 4호선 조기 착공 및 청학역, 오남역, 진접역 추진

- 위 사업을 2007년 11월 21일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광역교통기본계획에 계획에 채택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음. 재선에 성공한다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최소한 4년 안에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노선을 결정하여 본격적으로 송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공약 2 남양주와 서울을 잇는 도로 신설

- 현재 진접읍과 오남읍, 진접읍 등 총인구 15만이 넘는 이지역에서 서울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도47호선이 유일할 정도로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임. 더군다나 2009년부터 진접지구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도로사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진접읍과 오남읍, 진접읍에서 서울로 통하는 도로의 경로를 반듯하고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서울 중심을 가로지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등과 연결할 수 있다면, 진접읍과 오남읍, 진접읍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공약 3 교육환경개선

- 우리 부모님에게 교육은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력에 의한 교육 양극화 심화로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유리아이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는 통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통하여 유리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야 사회통합도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알찬 공교육을 위해서는, 맞춤형 1:1 교육이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을 목표로 2020년까지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부족한 학교를 시급하게 지어서 과밀화 교실을 방지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전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경
기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공약 4 왕숙천을 시민과 아이들에게 친환경 체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 남양주(을)지역 중심을 지나는 왕숙천과 그 지류인 광릉내를 지나는 진별천, 진접 지구를 지나는 금곡천, 오남을 지나는 진건천, 진건을 지나는 사릉천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친환경생태하천으로 조성. 왕숙천과 그 지천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유지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체육공원, 습지공원, 수변공원 등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진접과 오남에서 퇴계원을 지나 도농·지급도의 왕숙천변을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가족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음. 총사업비 약350억 전후 소요 예상되고 국고와 도비 및 시비로 충당해 2009년~2012년까지 완성함.

공약 5 어른들이 편안한 남양주, 아이들과 여성들이 안전한 남양주 조성

- 틀니비용 7천7백억 원(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여 노인 부양가족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르신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일명 경로당 현대화 사업)
- 가로등 성능 개선사업을 통해 밤거리가 밝은 남양주를 만들고, 서울과 남양주 간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을 돕는 그린택시를 도입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

선거구명	오산시	안민석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자율형사립고 선정을 연내에 유치하겠습니다.

- 필요성 : 오산관내 초등학생수(13,456명)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수(8,625명)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함. 2006년 전체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 44%의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녀교육 때문에 이주 계획이 있다고 답변함.
- 자율형 사립고 :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해당.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자율성 부여, 학교법인의 책임 강화(재단전입금 10%)로 우수한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추진경로 : 자율형사립고 추진계획 검토 → 자율형 사립고 법률 근거 연내 입법화 (초·중등교육법) → 자율형사립고 지정 심사 및 유치활동 → 지정 확정
- 자율형사립고 지정 추진단 구성(지정요건 협의, 계획서 작성 등) 및 경기도 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에 관내 사립고(오산고) 홍보·추천

경
기

공약 2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성 : 2006년 오산 전체 학부모 대상 설문 결과 학교급식 개선 사항으로 좋은 급식 재료를 사용할 것을 최우선 요청(33.2%)
- 시행방법 : 오산 또는 인근 지역(화성, 안성, 평택 등) 농어촌 지역의 농협,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등 등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각 학교에 직접 공급 받도록 함. 식품재료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보전 비용 지원 유도(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민간기업 등)
- 소요추정예산 : (전체 초·중·고생 지원 기준) 연간 약 9억 5천만원
⇒ 현재 시행중인 제주도 기준 1식 270원 보전
⇒ 270원×22,000명×8월×20일
- 연차별 계획 : 2008년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오산 인근 친환경농산물공급단체 조사, 2009년 필요시 오산시 조례개정 및 시범학교 우선 시행(3개학교), 2010년 전면실시 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녀 우선 지원

공약 3

주요 학교 통학로에 방범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학교주변 폭력이나 납치 등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방범 CCTV를 설치함으로써 유사사태를 예방하고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시행방법 : 교육청, 경찰서 및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방범 CCTV를 강하게 희망하거나 꼭 필요한 학교 10개교를 선정하고 설치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은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 유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응 부담하도록 설득
- 소요추정 예산 : 2005년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내 CCTV 설치 추진
⇒ 1,474대 20억 소요
 - 1대당 설치 운영 비용을 감안하면 150여만원
 - 150만원×3대×10개교 = 4천5백만원
 - 관리 및 운영은 경찰서에서 담당
- 연차계획 : 2008년내 10개교 선정 → 2009년 예산 계획에 반영하여 2009년부터 설치

공약 4

초평동(오산초)에 경기도 최초로 학교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 필요성 : 학교부지에 수영장+체육관+도서관+급식실+헬스장+복지시설 등의 복합 시설을 지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 학생들의 수업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
(학교복합시설은 정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임)
- 시행방법 : 2007년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경기도교육청-안민석국회의원의 협약서 체결 및 부지 확보 완료.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2008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 소요추정 예산 : 부지매입에 필요한 19억원은 기확보(경기도교육청) 및 부지매입 완료(2007. 12. 28) / 복합시설 건립 소요예산 총 70억원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 지원 MOU 체결, 부족분 40억원은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지원 추진
- 연차계획 : 2008년내 착공 → 2009년 말 완공 추진

공약 5

오산시내 초·중·고 영어 원어민 강사 100% 배치

- 필요성 :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영어교육이 강조되면서 영어교육방법 개선과 함께

원어민 강사 배치 요구가 높게 나타남. 경기도 평균 51.7%의 원어민 강사 배치율 기록중이나 화성오산교육청 관내는 44.9%에 그침. 군포의왕교육청은 101.7% 기록중

- 시행방법 : 우수한 영어 원어민 강사풀과 협력, 귀국 재외동포 등 활용하여 학교당 1~2명씩 원어민 강사 배치. 2010년까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70%이상 배치도 록 추진, 나머지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협의 및 오산교육발전기금 등을 조성하여 배치
- 소요추정 예산 : 원어민 강사 1인당 연간 7천여만원 소요(임금 및 체재비)
- 7천만원×9개교(28개교 × 30%) = 6억 3천만원(2010년 기준)
- 연차계획 : 2009년까지 오산관내 학교 60%에 배치 → 2010년 100%배치 달성

선거구명	화성시갑	김성희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깨끗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 정치신인으로써 기존정치에 물들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화성시와 화성시민만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 하겠습니다.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군인정신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가 아닌 것에 눈 돌리지 않는 진심 어린 정치를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인생이었듯이 앞으로도 정도만을 추구하고 국민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뚝뚝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4년 후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공약 2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어촌 재해보험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농어촌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수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세제지원과 국가보조를 늘려 건전한 재무구조를 이루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용 농업(특화장물)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약 3 **꼼꼼한 복지정책으로 따뜻한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 화성시 갑 선거구는 도농복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지의 혜택이 시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대규모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할 것이고 농촌지역에는 보다는 의료행정을 펼치기 위해 보건진료소의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구성 비율이 높은 어르신들과 영세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의 편의시설 확대와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약 4

즐겁고 유쾌한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 화성시는 무궁한 발전이 예약된 가능성의 땅입니다. 화성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문화성을 살리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송산 그린시티 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윤택한 생활을 위해 자발적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화성팔경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국가적 차원의 관광지 개발과 국책사업의 유치에 적극 나서 시민들의 수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5

자연과 사람이 함께 호흡하는 웰빙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화성은 서해안 시대의 중심입니다. 그런 만큼 개발압력 또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최우선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내에 흐르는 하천(발안천, 남양천, 어은천, 황구지천 등)들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태공원화, 레포츠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화성시의 자랑거리인 서해안의 생태계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화성시의 이미지를 수도권의 마지막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먹거리 정책을 적극 개발하는 일에 앞장 서겠습니다.

선거구명	화성시을	박보환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시원하게 뺨 뚫린 도로망 구축은 기본!

- 화성⇔서울 간선급행버스(BRT)망 구축
- 신분당선 및 오리~동탄~오산간 전철의 조기 도입
- 서울과 소통할 수 있는 고속전철 조기 도입
- 송산 그린시티~남양동 화성시청~동탄간 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공약 2 인재가 몰려드는 명품교육도시로!

- 동탄 국제고등학교 조기 개교
- 반월동 현대타운 고교개설 추진
- 고등학교별 특성화된 인재교육 지원
- 동부권 도서관 확충/제2장학관 개설(서울 강북지역)
- 화성외국어마을 조성 지원(여성, 청소년 전문교육 프로그램 도입)
- 해외 자매도시간의 학생교류 프로그램 대폭 확대(영어권 중심)

공약 3 시민들의 표정마저 여유로운 일등문화도시로!

-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한 빛의 예술도시 조성
- 테마거리 조성(용건릉~용주사~병점역~병점2역~동탄1신도시 간)
- 여성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 권역별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 근로자를 위한 문화센터 확대

공약 4 노인들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 의료도시로!

- 동탄지역 종합병원 유치 조기 실현

- 병점역세권 반월·진안권·화산·기배권 내, 체육공원 조성
-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 대폭 확충
- 오산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휴식공간 마련
- 장애인 이용시설 확대 및 의무화 추진
- 노인사관학교 운영 및 평생교육 기반 강화

공약 5

기업들이 몰려드는 대한민국 중심 IT 혁신 클러스터까지!

- 신바람나는 기업환경 조성
(관내 주요기업 및 협력벤처기업단지 업무지원 기능 강화)
- 대한민국의 지식산업 중심지 역할 강화
(벤처센터 및 지원 프로그램의조기 도입)
- 산·학·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강화
- 화성 비즈니스센터 건립(동탄 2신도시 내, 창업보육센터 등)
-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개혁
- 동탄지역 보상 현실화 및 주민정착 지원 강화

선거구명	시흥시갑	백원우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유치

■ 목적

- 국제화 교육 중심도시로서의 시흥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유치는 꼭 필요합니다.
-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와의 접근성 및 입지조건이 좋은 군자매립지, 옛염전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기한 : 2016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재원확보

- 대학교 부지는 시흥시에서 제공하고, 학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경기도비로 재원 조달하겠습니다.

공약 2 시흥전철 역세권개발 추진

■ 목 적

- 문화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확충 등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하겠습니다. ‘신천역’은 삼미시장과 연계된 명실상부한 시흥의 중심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시흥시청역’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여 교통의 중심역으로 만들겠습니다.

■ 방법

- 신천역은 삼미시장과의 공동개발계획에 의한 지하상가 건설로 중심상권으로서 쇼핑몰을 조성하여 역세권 상업지구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협조하여 인천지하철 2호선의 환승역으로 개발, 향후 매화동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으로 만들겠습니다.
- 시흥시청역은 환승센터를 역사와 묶는 복합용도 시설로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중심의 쇼핑센터 등의 계획으로 시흥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 기한 : 전철완공 예정인 201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재원확보**

- 역세권 부대사업으로 시흥전철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의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개발하겠습니다.

공약 3

종합대학병원 유치

■ **목적**

- 장현택지개발지구 내 1만평의 부지에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 송도와 연계한 양방과 한방협진이 가능한 국제적인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 **방법**

- 서울대병원 등 공공병원과 원광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각 대학병원에 제안서를 발송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각 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해 유치 의향서를 전달하고, MOU를 체결해 택지개발 사업이 토지분양 단계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한 : 2012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재원확보**

-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병원에서 사업비 전액을 조달합니다.

공약 4

‘은행동 뉴타운’을 복지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조성

- 구역별 세부적인 촉진계획 수립 시 해당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복지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목적**

-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도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 **방법**

-
- 은행뉴타운 총 62만㎡ 중 공장들이 약 41% 차지하는 지구특성을 감안, 공장지역을 정비하여 주민 문화·복지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정된 신천역사와 연계한 입체적 개발로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약 5

‘월곶 - 시흥시청 - 광명’ 전철 유치

- 2008년『월곶 ~ 광명』전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합니다. 『월곶 ~광명』전철 확정 및 장곡역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목적

- KTX 광명역 활성화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및 수도권 서남부권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KTX광명역 ~ 인천간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방법

- 2008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1단계 광명~월곶간 15.2km(1조1,600억원)와 2단계 광명~관교간 22.5km(1조2,717억원)의 2개 복선전철 사업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타당성 기본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 기한

-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 재원확보

- 사업비는 1조 1,600억원이 예상되며 국가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습니다.

선거구명	시흥시을	조정식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서울대 군자매립지 유치

- 서울대 군자매립지 유치
 - 학생수 1만5천명, 30만평 규모, 융합 학문 중심으로 학과 신설
 - 학부과정·대학원과정·산학협력 세 부문으로 구성
 - 서울대가 운영하는 국제중학교·국제고등학교 설치 추진
 - 시화공단·MTV 입주기업과 적극적 산학협력

공약 2 월곶선(월곶~광명) 전철 노선 추진

- 월곶선(월곶~광명) 전철 노선 추진
 - 완공시 서울까지 30분이면 도착
 - 당초 계획된 제2공항철도 시흥통과구간(소래~방산동)을 '월곶~광명'으로 변경
 -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광명시와 협조하여 조기에 추진·반도체·LCD 관련 대기업 유치로 시화공단의 첨단화 견인
 - 굴뚝 없는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

공약 3 MTV에 대기업 유치

- MTV에 대기업 유치
 - 선도 대기업 유치로 공단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시화공단 우수기업에게는 우선입주 기회 부여
 - 자동차 부품·반도체·LCD 관련 대기업 유치로 시화공단의 첨단화 견인
 - 굴뚝 없는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

공약 4 수인선 2010년 완공

-
- 수인선 2010년 완공
 - 올해 예산 국비 608억원을 확보했음.
 - 월곶역을 상반기중 착공하고, 인근 7만평 역세권 개발
 - 월곶선과의 환승역으로 대중교통의 중심지 부상
 - 연간 국비 1천억원 이상 확보하여 2010년 개통 실현

공약 5

명문고 육성

- 명문고 육성
 - 시흥시 연간 교육 지원예산 100억 이상 확보(현재 3~40억 수준)
 - 월 10만원으로 초·중·고생 모두 이용 가능한 영어체험교육센터 공공시설부지에 설립
 - 서해고·정왕고·함현고·군서고를 우수고등학교로 적극 육성 및 지원
 - 시화공고·군자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육성 및 지원

선거구명	군포시	김부겸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품격 있는 상생의 정치

- 합리적 비판과 견제를 통해 품격 있는 상생의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 정부여당의 도덕성 부재와 일방적 독주을 견제하겠습니다.
- 민주당을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21세기형 미래정당/정책정당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공약 2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명품교육도시 군포건설

-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교육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 특히 관내 고등학교에 방과 후 수업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20억 원으로 늘려 외부 강사 및 관내 우수 교사를 초빙 논술, 수리, 언어 과목에 걸쳐 심화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어 원어민 강사의 질을 더 높이고 양도 확대하겠습니다.
- 새로 개발되는 당정공업지역 산업단지 내에는 명문대학 소속 공과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 측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공약 3 종합적인 첨단산업단지 개발

- 263만m²의 당정 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난개발을 막는 한편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 산업단지는 대학, 유통단지, 주거단지, 첨단연구소, 기술 집약형 미래 산업과 녹지 공간이 어우러진 종합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일자리와 교육을 연결해 군포의 도시 가치를 한 차원 올려놓겠습니다.

공약 4**금정/군포 뉴타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백화점 유치**

- 금정/군포 뉴타운 사업의 사업승인 취득(2009/2010년), 착공(2012/2013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사업 완공에 맞추어 금정역 또는 군포역을 민자 역사로 개발하고 백화점등 종합 유통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공약 5**군포시를 가로지르는 산본천의 복원 추진**

- 수리산자락에서 흘러내려 초막골과 금정역을 거쳐 안양천에 합류되는 자연하천인 산본천의 중장기적 복원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초막골-금정역-안양천, 3.5km)
- 우선적으로 금정뉴타운-주공재발지역-중앙공원에 이르는 지역은 부지를 확보하여 자연하천을 복원하고,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장기적 복원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당동2지구 등 각급 도심공원내 수변공간을 확보하여 자연환경과 도시가 조화된 명품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선거구명	하남시	문학진
정당명	통합민주당	

공약 1 광역화장장 저지

■ 이유

- 광역화장장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쌓아온 하남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추락하고 신도시 유치 또한 어렵고, 상권 붕괴와 경제 악화가 우려되어 하남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책임. 아울러 금년 5월부터 각 지자체 별로 필요한 소규모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개정 장사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것임. 또한 광역화장장 유치로 2,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는데 떨어질 집값, 땅값을 비롯한 하남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2,000억원도 경기도에서는 재정 형편을 봐서 수년에 걸쳐 나누어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어 언제 줄지도 불투명한 실정임.

■ 목표

- 광역화장장을 막아 내고 시민들과 올바른 하남발전방안 공유

■ 방법

- 이번 총선을 통해 광역화장장 반대가 시민 대다수의 의견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여 유치 철회를 강제, 총선 이후 실시되는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광역화장장 반대 후보 당선 위해 노력, 하남시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최일선에서 전개

■ 기한

- 2008년 중 해결하고 하남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하남발전방안 마련

공약 2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유치로 수도권 제일의 자족도시 건설

■ 이유

- 하남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신도시 후보지로 손꼽히고 있음. 또한 02년~06년까지 강남에서 하남 유입된 인구가 전체 전입인구의 50%에 이르고 있어 강남 대체지로 부각되고 있음. 반면 그동안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서울 및 강남의 수요를 흡수해야 하나 이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 하남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05년 말 주택보급율이 75.1%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100.8%에 크게 못 미치고 자족기능 또한 미비함. 인구도 13만에 불과 지하철 연장 등이 힘든 실정

■ 목표

- 기업 및 첨단산업 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유치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 지하철·종합병원 등이 들어올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임.

■ 방법

- 하남신도시 유치 토론회 등을 통해 하남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국회건교위 활동을 통해 신도시 정책의 문제점과 하남신도시 필요성 적극 제기. 08년 말까지 각계각층을 망라한 ‘하남신도시유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유치활동 전개 등

■ 기한 : 임기 내 추진

공약 3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정

■ 이유

- 하남은 면적의 9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가능지가 절대 부족하여 주택보급이 극히 저조하고 경제·문화·교육 등 자족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이처럼 개발 제한 구역이 발전을 가로 막고 있음에도 정작 개발제한구역 실태를 보면 축사가 잠식하고 있는 등 훼손이 심각함.

■ 목표

-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정하여 개발가능지를 확보해 하남을 체계적으로 개발

■ 방법

- 하남은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가능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있는 개발불능지로 인해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상 일부를 제외하고 조정가능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음. 문제는 07년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이 99~01년에 수행한 환경평가 자료를 토대로 하여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과 현실에 맞는 환경평가 재검증이 이뤄지면 개발불능지 또한 대부분 개발가능지로 전환될 수 있음.
- 건교위원 활동과 ‘개발제한구역 의원연대’를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적극 제기하여

환경평가 재검증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정

■ 기한 : 임기 내 추진

공약 4

하남교육청 독립·신설

■ 이유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제1항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교육청을 설치토록 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를 제외하고 광주하남교육청처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교육청은 전국에 9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독립되어 있는 실정임. 광주하남교육청이 광주에 있음으로 인해 하남은 교육 정책에 있어 지리적·정서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 또한 하남은 2008년 풍산지구 입주 등 향후 학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광주 또한 마찬가지로 하남과 광주가 각각 교육청을 독립·신설하여 각각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목적

- 하남교육청을 독립·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반 조성

■ 방법

- 하남경찰서 신설을 확정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국회교육위원회들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일대일로 직접 만나 필요성 설득

■ 기한 : 2011년까지 신설 확정

공약 5

미사리 휴양관광단지 조성

■ 이유

- 21세기는 굴뚝 없는 관광·문화산업의 시대로 관광·문화산업의 육성은 한강과 검단산 자락을 잇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하남에 꼭 맞는 경제활성화 방안이자 발전전략임.
-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경정장, 조정경기장, 카페촌, 생태공원, 수목원이 있는 미사리는 서울 및 인근 도시에서의 접근이 용이하여 수도권 외의 휴양·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지임.

■ 목적

- 미사리를 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고 하남에 산재해 있는 역사유적과 연계하여 관광·문화산업의 기반 창출

■ 방법

- 미사리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선사유적지·이성산성·구산성지 등 역사 유적과 연계

■ 기한 : 임기 내 추진

선거구명	파주시	황진하
정당명	한나라당	

공약 1 **각종 규제를 풀겠습니다.**

■ **현황**

- 파주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파주는 전체(672km²)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623km²규모로 시 면적에 93%를 차지하고 있어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 이를 일정부분 해제하고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도시 발전 저해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가 필요합니다.
- 현재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지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 때문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 **목표 및 방법**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 시키겠습니다.
 -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대폭 완화 및 해제
 -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추진
- 반환미군기지 적극 활용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교 유치
 - 산업 및 관광단지 조성
- 민간인출입제한구역의 영농 출입 간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방부, 현지 부대와의 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공약 2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현황**

-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시 인구의 절반이 금촌·교하에 밀집하는 등 지역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특화된 지역 개발이 필요합니다.

- 체계적이고 특화된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의 기본인 교통망이 갖춰져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내부간선 도로망과 광역간선 교통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 목표 및 방법

- 4대 권역 특화 개발해 파주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문산·파주·월릉 : 첨단산업 중심 생활권화
 - 법원·탄현·광탄·파평·적성 : 관광·레저 생활권화
 - 조리·금촌 : 행정 중심 생활권화
 - 문산·교하·금촌 : 주거문화 중심 생활권화
- 내부간선 도로망 구축으로 내륙지역 개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35개 관내도로를 남·북간, 동·서간 각각 4개축으로 정비
 -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양주), 국지도 78호선(고양~광탄) 도로 조기 완공
 - 교하 신도시 경전철 추진
 - 적성~인천국제공항 버스노선 신설
- 광역간선 교통망 구축하겠습니다.
 - 제2자유로 건설 조기 완공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김포~관산(~광탄) 간 도로 조기 완공
 - 경의선 복선 전철화 조기 개통으로 서울진입 30분대 단축

공약 3

평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현황

- 파주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접경도시’ 이자, 휴전선의 최전방 ‘군사도시’ 로 전략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파주’는 ‘안보도시’ 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파주는 이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이 가능해졌고, 이와 더불어 접경지역 개발 및 군사보호구역 축소 등을 통해 ‘안보도시’ 에서 ‘평화도시’ 로 이미지를 바꾸어 ‘브랜드 도시’ 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 목표 및 방법

-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군내면 백연리 일원) 활용
 - 공연장·전시장 등 남북문화예술교류 시설, 체육시설 등 건설
 - UN참전국 전통마을 조성

- DMZ 지역 개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DMZ 일원(한탄강, 임진강 포함)을 UNESCO 세계생태환경자연유산 등록
 - DMZ를 평화와 생명을 상징하는 세계적 생태교육 현장으로 개발
 - DMZ에 국제 평화·환경 기구 유치

공약 4 친환경 도·농 복합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현황

- 파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 하지만 파주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농촌이 파괴되고 있으며, 환경오염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파주시는 '96, '98, '99년 임진강 유역의 대홍수로 문산 시가지가 침수되어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은바 있습니다.
 - 이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 타 시·도와는 다른 농·어촌 정책으로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 수질을 관리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 목표 및 방법

-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쾌적한 도시를 위한 녹지공간 확보
 - 유통구조 개선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
 - 임진강 수질개선(어획량 증가, 맛 좋은 쌀 생산)
- 재해 없는 파주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속적인 하천정비와 배수펌프장 시설 확충
 - 임진강 수위조절 댐 건설, 금촌천 등 수문설치로 수해예방 시스템 구축
- 농축산물 브랜드화 등 파주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신제품 개발과 유기농법 보급
 - 특산품 직거래 활성화
 - 재래시장 활성화
 - 양축농가 활성화

공약 5 품격 높은 명품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현황

-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 여건 및 문화 복지시설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육아와 보육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 목표 및 방법

- 한반도 중심부의 글로벌 교육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 이화여대 등 조속한 대학교 설립 추진
 - 미래형 유비쿼터스 학교 설립 추진
 - 낙후된 교육환경 대폭 개선 (신도시 수준)
 - 대입 지장 없는 파주교육 발전
- 복지가 살아 숨쉬는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전문병원 유치 및 노인요양 보호시설 확충
 - 장애우 전용시설 확충
 - 대형 종합병원 유치
 - 문산권 복지센터 건립
- 여성에게 편리한 파주 실현하겠습니다.
 -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적극 지원
 -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확충 지원
 - 여성 평생교육 지원
- 문화편의시설 및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겠습니다.
 - 지역별 종합스포츠센터 건설로 더욱 건강한 파주 실현
 - 도서관, 문화센터, 공연장 등 확충으로 시민들의 '고품격 리빙' 실현
 -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육성
- 고품격 관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 역사적 유산 및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도시 개발
 - 통일경제관광 특구 추진

선거구명	이천시 여주군	이범관
정당명	한나라당	

공약 1 규제철폐

-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하고 대체 입법 추진, 정비발전지구 도입 지정
- 팔당 특별 대책 지역 폐지 또는 완화
- 한강수계법 개정, 오염총량제 의무화 추진

공약 2 교육경쟁력강화

- 인터넷 동영상강의 무료수강 제도 시행
- 케이블TV방송을 위한 수능강의 프로그램 운영
- 자립형 외국어 사립고 설립

공약 3 동부권 경제 중심지 도약 기반마련

- 동부권 경제 중심지 도약 기반마련
- 외국인 산업단지 조성
- 채용박람회 활성화

공약 4 도로망 확충

- 제2여주대교 설치
- 중부 고속도로 남 이천 IC 신설

선거구명	용인시 처인구	우제창
정 당 명	통합민주당	

공약 1 처인구 고등학생 5% 영어/중국어권 유학(연수)기회 부여

- 현재 용인 처인구에는 일반고 3개교 및 전문계 3개교가 있고 고등학생은 5,695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해외학교와의 자매결연은 용인고, 태성고가 맺고 있다.
- 세계화 시대에 우수한 학생들의 학습 성취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용인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플러튼시, 중국 양주시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 이들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해 홈스테이 및 교환학생 등의 방법으로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위와 같은 인프라와 교수 재직시 추진했던 다양한 해외연계 프로그램 등의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에게 꿈과 의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공약 2 처인구내 자립형사립고 1개, 전문계 특성화고 2개 추진

- 현재 용인시는 수지구인 광고개발 예정지구 내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처인구의 교육현실은 열악해,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수원, 분당 또는 수지 지역으로 전학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학부모부담이 큰 자율형 사립고는 자립형으로 바뀌어 처인구에 유치되어야 한다. 또한 용인정보고와 용인농생명고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 받는 특성화고가 아니라, 21세기 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마이스터(Meister)고교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당선시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공약 3 구도심 재생으로 “용인명동” 건설

- 처인구는 수지, 동백지구 등과 비교해 도심 상권의 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도심 상권이 발달하기 위한 3대 조건은 편리한 접근성, 풍부한 유동인구와, 유동인구의 소비력, 즉 자금이다. 현재 용인시는 그 어느 조건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전철 개통으로 시내중심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오염총량제 해결로 재개발이 실시되고 인구가 늘어나며, 산업단지의 유치로 돈이 돌기 시작하면 용인 중심부는 서울의 명동같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 이미 가시화한 교통확충 및 인구증가 외에 산업화와 도심으로의 구심력 증대를 통해 이를 꼭 실현할 것이다.

공약 4 용인관광공사 설립

- 용인은 어느 시군구보다도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박물관, 세종옛돌 박물관을 비롯해 10개에 가까운 박물관, 호암미술관, 마가미술관을 비롯한 미술관, 한택식물원, 우리랜드 등 자연자원, 에버랜드 등 위락시설 등이 그것이다.
- 그러나 용인의 관광은 체계적인 관광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체류형 관광이 되지 못하고, 용인시민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용인관광공사의 설립을 통해 각종 시설 연계와 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도록 해, 해외관광객 및 각 학교의 단체관광 수요를 흡수해 국내제일의 관광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약 5 도심권 지역난방으로 난방비 20% 절감

- 용인도시기본계획 2020에 의거하면 처인구 도심을 10여개의 지구단위로 분할해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2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수지구의 95%, 기흥구의 70% 이상은 지역난방이 실시중이거나 설치될 예정이지만, 처인구의 경우 도시가스 외에 지역난방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 포곡 금어리의 소각시설을 이용해 에너지를 재활용하면 기존 난방방식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주민에게 난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꼭 실천 하겠다.

선거구명	용인시 수지구	한선교
정 당 명	무소속	

공약 1 신분당선연장선 1단계구간 우선 착공

- 신분당선연장선 1단계구간 우선 착공이 건설교통부 고시로 확정된 만큼(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58호) 2008년에 민자사업자를 선정하여 첫 삽을 뜨겠음.

공약 2 용인-서울 고속도로 완공

- 2009년까지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반드시 개통시키겠음.

공약 3 머내고가 완성

- 금년 12월까지 머내고가공사를 완공해서 수지구민들에게 시원한 출·퇴근길을 선물하겠음.

공약 4 죽전광역교통환승센터 건립

- 본 후보자의 아이디어였던 죽전광역교통환승센터가 작년 12월 건설교통부의 대도시 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었음. 앞으로 경부고속도로 오산-서초IC 전일 버스 차로제 도입과 함께 수지의 교통혁명이 일어날 것임. 2005년 12월 임시 설치한 죽전 간이정류장이 죽전광역교통환승센터로 다시 태어날 것임.

공약 5 수지IC 설치

-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수지IC설치를 반드시 달성하겠음.

선거구명	용인시 기흥구	박준선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사통팔달 기흥구,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국회 등원 이후 1년 이내 용인시와 버스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출·퇴근시 배차간격과 효율적인 버스노선의 재정비와 마을버스 노선 확충하겠습니다.

공약 2 일산의 호수공원보다 좋은 기흥호수공원을 만들겠습니다.

- 2013년에 완공예정인 기흥호수공원을 2011년까지 조기완공 시키겠습니다. 총 사업비 3,220억 원으로 전액 용인시가 부담하지만 향후 국토해양부, 환경부, 경기도의 예산을 총사업비의 10% 이상 확보하여 공사기간 단축시키겠습니다.

공약 3 검사출신의 박준선, 범죄 없는 기흥구를 만들겠습니다.

- 2010년까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가로등 재정비하겠습니다. 현재 기흥구에 84개소 설치가 되어있는데 최소 30여 곳 이상 증설하여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방범용 CCTV 1대 단가 1,500만원*30대=4억5천만원)

공약 4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기흥구를 만들겠습니다.

- 2011년까지 신갈 오거리를 전면 재정비하여 뉴타운 같이 확 바꾸어놓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102억원, 시설설치비 10억원을 합해서 112억원(추산)을 투입하고 용인시 간판설치 가이드라인(가칭) 신설하고 불법주정차 교통단속 강화하겠습니다.

공약 5 오산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2009년까지 오산천을 서울의 청계천, 양재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시설비 109억원

(도비 81억, 시비 28억 기 편성)가 편성이 되어있지만 환경부의 자연형 하천 조성 지원사업에 포함시켜 국비를 총사업비의 5%이상 확보하여 공사기간 단축시키겠습니다.

선거구명	안성시	김학용
정당명	한나라당	

공약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파주의 LG필립스나 화성시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업과 외자기업을 안성에 유치해 좋은 일자리 창출
- 안성시 중소기업인을 위한 가칭 “안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서민경제를 지원

공약 2 아이울음소리 들리는 농촌을 위해

- 농기계임대제도를 활성화, 저렴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원
- 농기계임대사업에 농약방제용 무인헬기 추가, 농민건강의 유해요소인 농약으로부터 해방
- 실익 있는 1사1촌 자매결연이 되도록 적극 노력
-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시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안성 농산물의 수출 확대

공약 3 앞서 가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 제대로 된 안성시민회관 건립 등 문화 인프라 구축
- 보다 많은 외국인과 외지인이 오도록 해 내실 있는 바우덕이 축제가 되도록 지원
- 안성의 무형자산, 예술인들이 안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공약 4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 방과 후 수업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이하로 절감
- 각 학교별 공모를 통해 채택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실현
- 보편적인 교육체제가 되어있는 유치원에 지원 확대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부담 축소
-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영어체험교육 확대 추진

- 자선과 나눔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사회기여 분위기 조성해 소외된 사람 없는 따뜻한 안성 지향
- 정신지체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 거점별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어르신에 맞는 일자리 제공, 생산적인 노인복지 지향

선거구명	김포시	유정복
정당명	한나라당	

공약 1 도시철도 및 고속화도로 2012년까지 조기 개통 등 교통문제 해결

- 김포신도시가 확정되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교통문제의 해결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및 고속화도로 건설, 국도 48호선 신곡교차로 개선, 인천지하철 김포 연장 등의 다양한 교통관련 정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김포 도시철도와 고속화도로가 2012까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가 고속화도로, 48호 국도와 더불어 기간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선이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저는 고촌과 풍무·사우·북변·장기동 지역의 중심지를 경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누산-마송 간 도로를 확장하고, 인천-누산 간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할 것이며 인천-대명 간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2 통일안보관광의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

- 김포시의 애기봉은 북한과의 최단 거리에 위치하여 남북평화통일안보관광의 최적지로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애기봉의 기존 노후화된 전망대를 현대식 건축하여 개발시설의 특성화 및 고차원의 소프트 개발 운영으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김포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김포-개성 간 육·해상 교통망 구축을 통하여 통진·하성·월곶 지역을 통일안보 관광 배후도시로서 육성·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공약 3 경인운하 추진 및 부대시설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경인운하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과 폐기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김포시 교통문제 해결의 장애물로 남아 있어 이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합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 서해 바다로 18km 구간의 운하건설은 한강 하구의

국가물류산업과 김포경제·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새 정부에서 추진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경인운하와 함께 추진될 터미널의 이름을 김포터미널로 하고 김포시에 물류 단지가 배정되어 김포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이외에도 저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가지정 산업단지 조성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농·축·수산물 직거래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수도권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4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공원·복지·교육시설 확충

- 저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50년 김포시민의 숙원이었던 한강 하구의 철책제거를 확정하였고 현재 그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강철책은 남북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으며 김포시민의 재산권 침해요인이었기 때문에 한강 철책 제거는 남북 화합과 김포시민의 긍지를 되살릴 수 있는 역사적 사업이 될 것입니다. 철책제거 후 한강변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생활체육시설과 시민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철책제거 후 부지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한강하구의 종합적 활용방안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2여성회관 건립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개설,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확충, 북부권 사회복지관 신설, 실버타운 및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 김포경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증설, 새마을회관·교통회관 건립,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제중학교·항공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교를 추진하고, 학교잔디구장 등 교육시설 확충과 권역별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며 종합문예회관 건립, 덕포진 안보관광지와 대명 함상공원 조성, 어린이회관 건립 및 공원조성,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자전거도로 신도시 및 전류리-시암리간 조성, 오라니장터 3·1운동기념관을 건립 하겠습니다.

공약 5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지원확대

- 현재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항공법령에 소음대책규정을 마련하여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확보의 방안 및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등이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원확보의 방법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공
항으로 인근지역 김포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명	광주시	정진섭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팔당취수장을 이전하여 수질보전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현황

- 경기 동부지역은 수질보전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주변도시의 발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와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음.
- 이와 함께 수질보전을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수도권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아 수돗물을 음용하는 비율은 0.5%에 불과하며 생수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목표

- 팔당취수장을 수질이 가장 좋은 북한강 양수리로 이전하고 간접취수를 통하여 수도권 주민에게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중첩규제를 받아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방법

-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해 매년 투입되던 1조원 이상의 국비 예산(최근 5년간 5조2천억원)과 3천억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취수장 이전비용 및 취수장 이전 예정지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여함.
-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협의하며 환경부에는 이미 취수장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확보해 둔 상태이며 국토해양부와는 공감대를 형성해 두고 있음.
- 한나라당, 경기도, 수도권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함.

공약 2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여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겠습니다.

■ 현황

- 전 세계는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규제를 철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경기도의 연간 산업생산액은 동부 17조원, 북부 25조원, 서부 83조원, 남부 116조원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함.

■ 목표

- 국가적 무한 경쟁속에서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과 경쟁할 주체는 경기도이므로 행정구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철폐하여 수도권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규제철폐로 인한 연7%의 성장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이루고자 함.

■ 방법

-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경기도, 수도권 국회의원 등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초반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공문화하고 경기도와의 긴밀할 협조를 통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법률안 또는 수도권발전특별법을 제출함.
- 상대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비수도권에는 다양한 지역발전정책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함.

공약 3

경부운하터미널(여객, 물류)을 광주에 유치하겠습니다.

■ 현황

-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현재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제조업의 물류비용은 총매출액의 9.9%나 되며, 이는 미국의 7.5%, 일본의 5%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목표

- 경부운하 건설의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추진된다면 경기 동부권역에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광주에 화물, 여객 터미널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물류·건설비용을 감소시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임.

■ 방법

-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광주의 화물·여객 터미널은 대운하 건설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하여 추진되는 것임.

- 광주의 경우, 팔당댐의 건설과 함께 끊어졌던 뱃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중부 및 제2영동고속도로, 복선전철, 자동차전용도로·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대규모 물류센터 등이 많이 입지하고 있어 물류비용의 절감이 예상됨.
- 특히, 현재 후보지로 거론되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선착장은 국유지로서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사업비 절감과 개발이 용이함.
- 이와같은 역사적 상징성과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당위성을 정부와 경기도, 국회를 상대로 설명하고 광주 유치를 추진함.

공약 4 사통팔달하는 교통이 편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현황

- 경기도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4조6천억원으로 경기도의 경쟁력 약화 및 주민 삶의 질 악화의 주요 원인임.
- 광주시의 경우, 경기 남부 및 강원·충청권에서 서울 강남 및 분당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서 평일에는 물류수송 차량과 주말에는 나들이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음.
- 수도권 규제에 따른 개발 억제로 대중교통체계까지 발전하지 못해 주민생활의 불편 및 박탈감이 심화됨.

■ 목표

- 성남~광주~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을 수년간의 노력 끝에 금년도 착공시켰으므로 이를 적기에 완공, 상습정체구간인 3번 국도를 대체하는 성남~광주~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광주구간의 조속한 개통 및 주요 연결 도로를 적기 완공하여 산업활동의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킴.

■ 방법

-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노무현 정부의 신규사업 착공불가라는 조건 속에서 전국 16개 구간중 최초로 금년도에 착공토록 했으며, 자동차전용도로는 광주시 3개 구간을 모두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시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게 함.
- 장지~매산간 4차선 확장, 공설운동장~광주성당~황금당간 확·포장, 분원~귀여리 여우고개 개선, 장지IC 교차로 개선, 중소기업~등기소간 도로개설 사업은 국회에서 국비예산 확보 및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긴밀하게 협의, 1시간 경기도 만들기와 연계하여 도비예산을 확보함.

■ 현황

- 수도권은 중첩 규제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만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수도권내에서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이는 수도권규제라는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개발중인 신도시의 경우도 인구분산 및 부동산대책이라는 건설목적과 효과를 약화시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목표

- 오폭지역은 신도시 건설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기존의 신도시 개발과는 달리 환경·문화·역사가 어우러진 친환경명품신도시를 건설함.
- 중첩규제로 인하여 개발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된 광주시에 친환경명품신도시의 건설을 추진하여 교통·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방법

-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도시 건설은 규제해제 절대 불가라는 원칙으로 실패했음.
- 친환경명품신도시의 건설 추진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해제 기조하에 수도권 규제 및 수질보전규제 해제와 함께 추진함.
- 광주시는 강남권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분당급의 신도시 건설부지(500만평)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도로·국도 등 우수한 광역교통여건을 갖추고 있고, 천혜의 자연환경 및 수환경으로 친환경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경기도 유일의 지역임.
-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정부의 새로운 신도시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 및 광주시와 함께 재추진함.

선거구명	포천시·연천군	김영우
정 당 명	한나라당	

공약 1 지역경제부문

- 각종 중복된 규제는 포천·연천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수의 감소가 우려됩니다. 재정자립도는 이미 경기도 최하위를 기록 중 입니다.
- 포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문제와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취약한 교통망은 관광객을 불편하게 하며 기업들의 유치를 어렵게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 2003년 기준, 포천지역 총 생산량 2조4천억원 중에서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재화가 외부로 유출되고 7천억 원 정도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처럼 지역 재화가 포천시 안에서 선순환 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직장과 거주지 분리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and 거주지가 다른 원인은 대부분 자녀 교육문제 때문입니다.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풀어야 할 난제가 서로 실타래처럼 엮어 있습니다.
- 포천시 연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에 충실해야 합니다.
- 저는 기초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창한 공약이 아닌 기초부터 바꾸겠습니다. 먼저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정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뚫린 도로 옆에 관광단지, 산업단지, 농축산업 특화단지 that 들어설 것입니다. 농축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공약 2 교육부문

- 더 좋은 자녀 교육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의정부 등 인근도시로 전출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학교 붕괴는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집니다. 대통령도 농촌지역 기숙형 공립고교 육성과 장학금 지원 확대 등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교육의 공간으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우수한 교사의 확보와 자율형 사립고 및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 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주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교육문제의 해결은 지역재화 유출방지와 교통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더불어, 서울소재 4년제 종합대학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대진대, 포천중문의대, 경북대학교의 상생협력관계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백년대계의 평생교육도시 기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공약 3 **교통부문**

- 교통인프라의 확충은 포천시의 성장동력이며 포천연천 발전의 전제조건입니다.
- 현재 포천은 철도나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없고 동서측과 남북측이 제대로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약한 교통인프라는 각종 인프라 유치와 관광산업발전에 피해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취약한 교통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43번 우회도로를 검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수도권과의 유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민자고속도로, 간선급행버스(BTR),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을 통하여 현재 43, 47번 국도에 대한 의존도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 연천의 도로 포장율은 62%로 평균 84%인 경기북부 지역 중에 제일 낮습니다. 기업이 유치되고,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교통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서해안과 인천공항, 서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로와 연결된 산업도로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도 37호선(가평-포천-연천-파주) 확·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7번 국도가 조기완공되어 백학단지와 주변지역에 연결되면 산업자본 유치가 쉬워질 것입니다. 국도 3호선과 동두천 소요산에서 연천읍까지 경원선 전철 연결 사업의 조기추진도 시급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원선(소요산-연천)전철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광역 교통망의 신설 확충 및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공약 4 **중복된 규제**

-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허가 등 중복된 각종 규제의 완화는 교통망 구축, 지역경기의 활성화, 교육환경의 개선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구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강한지방·강한나라」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 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포천·연천의 규제완화를 위해 홍두승 국방담당 대통령직 인수위원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공정한 조정을 위한 민·관·군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이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예외를 적용할 것을 건의하는 등 포천·연천의 교통, 교육, 일자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각 분야별 인수위원들과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공약 5 지역협의체 구성

- 포천·연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개인의 영달과 명예만을 위해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은 공복이 되겠다던 초심을 잊지 말고, 포천·연천의 발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총체적으로 협력해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民·政·官·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기적인 정책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중심의 통합체를 결성하고 동참할 수 있는 장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함께 손잡고 화합할 수 있을 때 지역발전과 시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선거구명	양평군 · 가평군	정병국
정당명	한나라당	

공약 1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개요**

- 가평군과 양평군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중첩 규제를 받고 있음. 우리 지역이 적용받고 있는 규제는 수도권 집중에 의한 규제, 환경(팔당상수원)보호에 의한 규제, 군사시설보호에 의한 규제 등임.
-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10여개 이상의 법률에 받고 있음.
- 따라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 법률을 개정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임.

■ **예산조달계획**

- 각종 규제 법률의 개정은 국회를 통해서 추진할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음. 지역경제 활성화도 규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민가투자를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임.

공약 2 **국도 75호선 미연결구간(설악-청평) 조기 착공**

■ **개요**

- 설악 사릉리-청평 고석리간 국도 75호선 구간은 우리나라 국도 중 드물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간임. 이 때문에 설악에서 청평 방향으로 가는 주민들은 다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분이 더 걸리는 실정임.
- 국도 75호선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지난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 7월 기획예산처의 타당성조사를 통과함. 따라서 국도 75호선은 2009년 착공되어 2013년 완공될 예정임.
- 그러나 설악을 통과하는 경춘 고속도로가 조만간 개통될 예정이어서 국도 75호선 미연결구간도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올해 중에 착공되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예산조달계획

- 국도 75호선 설악과 청평을 연결하는 데는 약 7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충당할 것임.

공약 3

가평 66사단 및 청평내수면연구소 이전 추진

■ 개요

- 가평 66사단과 청평 내수면연구소, 청평 국군병원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가평발전에 상당한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음.
- 따라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국방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겠음.
- 이전 부지는 정부, 경기도, 가평군 등과 협의하여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나 기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임.

■ 예산조달계획

- 이전비용은 개발이익 등을 활용하여 해결할 계획임.

공약 4

수도권 국제교육센터 조성

■ 개요

- 조만간 양평 영어마을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임. 그러나 영어마을만으로는 당초 기대한 영어교육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지역사회 기여도 또한 미약한 것이 기존 사례임.
-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을 영어마을과 연계하여 수도권 최고의 국제교육센터로 조성할 계획임. 스위스 국제학교, 간호전문대학, 관광전문대학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예산조달계획

-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음. 또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임.

공약 5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유치

■ 개요

-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구상은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리는 고교 300개를 만드는 것임. 우선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하는 것임. 또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인 ‘마이스터고’ 50개를 집중 육성할 계획임. 더불어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교 모형인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전환 설립할 예정임.
- 가평군과 양평군에도 각각 1개교씩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구상에 맞춰 기숙형 공립고 등을 유치할 계획임.

■ 예산계획

-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중이며, 이미 운영중인 학교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예산은 필요 없음. 다만 학교 운영 지원예산은 국가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임.

